

# 龍仁文化

1986. 3. 31

第 6 號



## 龍仁文化院

# 龍仁文化

1986. 3. 31  
第 6 號



龍仁文化院

## 군 민 현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현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 목 차

머릿말	문화원장	5
어린시절	박상돈	6
<b>용구문단</b>	〈詩〉 당신들이 무어라 일컫든	9
	유영	9
	빛깔	11
	안재승	11
	제3의 고독	12
	박상돈	12
	겨울이 봄에게	13
	이길호	13
	어느 하루의 의미	14
	임준규	14
書藝小考	김동해	17
<b>꽃꽃이</b>	李祖 女人	19
	오민근	19
<b>학교순례</b>	용동 중학교	20
<b>연수원탐방</b>	홍국 생명 연수원	24
참友情	박민웅	26
<b>特 輯</b>	3.1 運動 實錄	29
	이용락	29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혁(金赫)	34
	교육사업과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여준(呂準)	36
	36	36
<b>민속놀이</b>	지경단기	38
	하주성	38
<b>내고장민요</b>	모심기 노래, 논매기 노래, 애벌매기 노래, 김매기 노래, 팔노래	42
	42	42
<b>옛문헌속의 용인(4)</b>	양백정기	46
	홍순석	46
<b>용인군 금석문 자료(1)</b>	유복립 정려기	49
	홍순석	49
<b>지명유래</b>	비성고개 외1	51
	이인영	51
<b>역사의인물</b>	조선 명신 이자(李耜)	52
	이인영	52
<b>사발통문</b>		57
편집후기		63

# 머 리 말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龍丘文化」第六號를 發刊할즈음 박계민(朴桂敏) 郡守 김원석(金元錫) 警察署長 이재효(李在孝) 農協龍仁郡 支部長 세 분이 새로 赴任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歡迎하며 地域發展을 위해 獻身하실 것을 期待해 마지않습니다. 軍服務를 畢한 사람은 누구나 率先垂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더더욱 指揮者의 位置에 있는 사람이라면 數없이 이 單語를 썼을 것입니다. 自己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強要하지 말며 自己犧牲은 保留한 채 他人의 犧牲만을 要求하지 말자는 뜻으로 풀이해 봅니다. 社會淨化運動이 最初로 轉開되었을 때 筆者의 生覺은 오랜 세월을 두고 不條理가 形成되었다면 이를 除去하기 爲해서는 國民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을 손수 甘受해야 된다고 生覺했습니다. 그러나 그 不條理를 除去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았지 實際로 뼈를 깎는 아픔을 甘受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었음이 失望이었고, 알고 있는 것(知識)과 實踐하는 것(行動)을 別個로 生覺하는 것이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한 原因으로 生覺합니다.

尊敬과 信賴를 받는 指導者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尊敬과 信賴를 받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指示라도 그런 指導者에게는 順從할 것입니다. 身上的 위협 때문에 盲從이나 抗命은 尊敬과 信賴의 결여 때문일 것입니다. 正義의 看板밑에서 自己가 取할 利權은 숨긴채 일을 執行한다면 不信風潮가 만연할 것입니다. 어떤 週刊紙에 실린 60年代 記事中 꼭 「가」라는 方法이 最善인데 XX와 관련되어 있어 次善의 方法인 「다」라는 方法을 擇할 수 밖에 없었다는 記事를 보고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命令者와 受令者는 理解와 信賴가 바탕이되어야만 命令이 目的하는 것을 達成할 수 있고 이것이 결여되었을 때는 完全한 成功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最近 서울대학교 卒業式에서 總長이 회고사를 하려고 登壇했을 때 學生들이 야유를 퍼부으며 退場했다는 예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어처구니 없는 事件이 發生했습니다. 스승을 尊敬과 信賴로 對했다면 저런 일이 發生했을까? 하는 生覺을 해보며 尊敬과 信賴, 自己 犧牲과 奉仕, 知識과 實踐力 等等을 깊이 生覺해보며 새삼 軍服務中에 즐겨쓰든 率先垂範이 切實히 요구되는 때임이 確實해 잡니다.

## 어린 時節

朴 商 敦

인간에겐 누구나 예외없이 童心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그것은 이른 아침 햇살 아래 영롱히 반짝이는 이슬처럼 깨끗하고도 눈부신 것이며, 앵도화가 봄 별에 한껏 부풀어 오를 무렵 파랗게 물기 머금은 보리싹과 같이 윤기 띤 싱싱함이고, 그 발이랑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인양 가슴 조이는 신비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 감각과 이지가 발달하기 전이어서 무지가 더 많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른들처럼 거추장스러운 생활의 테두리에 매이지 않고 권모술수의 때와 이해타산의 먼지가 묻어있지 않은 상태였음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회상속에 떠오르는 그 푸른 옛날은 어리석었던 어떠한 행동 일지라도 우둔함이 타되거나 후회스러워지기보다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다시 되돌아가고픈 갈망이 더 강렬하게 비춰지는 것이다. 산 그늘에 끈질기게 버티었던 얼음마저 풀리고 제법 훈기어린 남풍이 얼굴을 간지럽히던 봄 언덕을 끝도 없이 달려보고픈 마음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돌돌거리는 실개천 위로 한들한들 어깨춤 추던 버들가지와 호들개비가 지금도 눈, 컷가에 선명히 남아 늘 우리를 손짓함은 무엇때문일까?

별 따가운 한나절의 텃밭.

잉잉걸리는 꿀벌들 사이로 노란 장다리꽃 위에 숨죽여 앉은 호랑나비가 가만히 가만히 유혹을 보낼 때, 두 날개의 화려한 모양이 그토록 커다랗게 부각되던 이유는 무엇때문이었을까? 무더운 성하에, 온종일 모래밭에 덩굴며, 물장구를 쳐도 점심을 굶은 배고픔이 잊혀진 채 재미가 쏟아지던 까닭은 무엇때문이었을까? 허수아비 세워진 논길에서 다 여문 벼포기가 망가뜨려지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극성스럽게 매뚜기를 쫓던 것은 무엇때문이며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에도 눈이 내렸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잠이 퍼뜩 깨어져 신바람나게 이불깃을 제치고 뛰어나가던 즐거움은 또 무엇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솟아오르는 어린이들만의 순진한 바람 때문이었고 덜 개인 감각의 소유자만이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신비스러움 때문이었으며,

최초로 눈에 뜨인 기이한 아름다움 때문이었으리라. 그것은 또한 강요와 간섭이 존재하지 않은 자유로움의 세계였기 때문이며, 한알 이삭의 소중함보다는 매뚜기가 더 가지고 싶었던 밭지 않은 단순한 욕망 때문이었고 새로운 천지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백의 감수성 때문이기도 하였으리라. 우리는 이제 나이들어 봄 언덕도 호들기에도, 호랑나비의 날개짓에서도 그 시절만큼 싱싱한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며, 똑같은 논길에 매뚜기가 뛰고 똑같은 산야에 눈이 내려도 잡고 싶거나 뛰어나가고픈 충동을 강하게 갖지 못한다. 그만큼 경험에서 얻어진 하찮은 달관으로 감정이 무디어져서이고 그런 일을 행하기엔 이미 시시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이 알아버린 까닭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 주위에서 큰 실망과 심한 경멸을 맛보거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불신을 당해 삶에 실증을 느꼈을 때는 이따금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철 모르던 시절이 천국과 같았다는 것을 .....

성장과 지각(知覺)이 가져다주는 고뇌와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

얕이란 사람에게 따라서 힘을 줄 수도 있으나 그와 반대로 의지를 잃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한 권의 책을 펼치게 되면 흥미와 관심으로 탐독해나갈 수 있지만 몇 번이나 읽어 그 내용을 훤히 알고 나면 아무런 재미와 감동을 주지 못하듯이 비슷한 줄거리로 펼쳐지는 삶의 페이지를 거듭 체험하고 나서 으레 나머지 장들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일괄하여 미루어 버리기 쉽다.

그 암담한 체념과 방심은 단 한 번 밖에 엮어 낼 수 없는 생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채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깊은 체념의 계곡에 빠져 버리는 경우를 종종 초래한다. 얕을 자기 발전의 밑바탕으로 삼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얕으로 해서 살아갈 의욕을 잃고 실의와 무위에 잠기게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닌가?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파란이 이어진 현실에서, 날개를 가지고 이상의 세계로 날아가고파도 인간이기에 꿈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 앞에서, 우리가 비판과 실의에 희망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때때로 어린이들의 단순함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저 산마루에 걸린 일곱 빛깔 고운 무지개가 물방울에 햇빛이 반사되는 프리이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것을 잡으려 숨가쁘게 고개길을 달려 오를 수 있겠는가? 만일, 바다 건너 저편에 아무런 낙원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 누가 애써 거치른 물결에 배를 띄울 용기가 있겠는가? 그것이 허망한 짓임을 알고,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다만 웃어 넘길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추구를 무한히 아름다운 무지개

\*\*\*\*\*

에 매혹되고, 힘겨운 항해 그너머에 전설의 세계가 존재하리라는 것을 꿈꾸는 어린이들은 실행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일과 사물 앞에 부딪혔을 때 이해타산을 계산하기 보다는 무엇이나 끊임없이 동경하고 추구하는 단순함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던 장난감 칼을 사주면 금새 장군이라도 된 양 어깨를 펴고 뽐내는 동심. 그토록 신고 싶어하던 운동화를 신겨주면 하늘로 날아갈 듯이 강충거리며 얼굴 가득히 웃음 짓는 천진스런 동심. 그네들의 소망은 작으나 순수한 것이요, 그네들의 마음은 얕으나 결코 우매함이 아니다. 연줄처럼 아스라하게 세월 저편으로 이어진 어린 시절의 추억은 아름답지만 화려하지 않으며, 그 꿈이 높고 커도 추하거나 허황하지 않은 것으로 떠 오른다.

그것은 언제 돌이켜 보아도 잊혀져 가는 승냥의 맛인 양 구수하고 아늑하다. 그리고 완전한 만족보다는 아쉬움을 더 많이 동반한다. 좀 더 사이 좋게 지내야 했었을 걸. 좀 더 착하게 자라야 했었을 걸. 좀 더 열심히 멋지게 뛰놀아야 했었을 걸 ... 비록 물질적인 넉넉함은 누리지 못했어도 늘 내 가슴 한켠에 동화처럼 소중히 남아 어른의 때 묻은 감정을 순화시켜주는 어린 시절.

그러리라. 어린이에게는 그네들이 비뚤어지거나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안내와 인도로 족할 뿐 간섭과 강요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새싹과 같아서 억압에 쉬이 상하고, 그들은 새와 같아서 과잉 옹호 속에 가두어 두면 소극적이어진다. 또 그네들의 마음은 바람이나 호수보다 더 환경에 잘 물들고 변해 버린다. 그러한 그네들이 자라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건전한 사회, 밝은 미래를 맞고 싶다면 이세들의 새 세대에 건강과 희망을 안겨주고 싶다면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되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한껏 뛰어놀고 심취할 수 있는 자연 환경. 그 대자연이 조화와 균형 속에 어우러져 존재해가는 신비감을 만끽하는 자유. 그리고 그 신비감을 느끼는 자유 속에서 저절로 깨닫고 터득해가는 모든 것의 소중함. 모든 것이 소중함을 깨달은 자는 개인보다는 공익의 편에 설 줄 알고, 이해와 양보와 협동을 아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닌가? 그러리라. 인간의 기본됨이 채 갖추어 지지도 않은 어린이에게는 선부른 재능, 몇 가지의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을 가꾸어 주어야 하리라. 자기혐오와 시름의 먹구름이 덮이지 않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드높은 마음을. 두고 두고 반추해도 후회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



愛鄉詩

龍仁

당신들이 무어라 일컫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유 영

당신들이 무어라 일컫든  
 선비의 꽃 정암(靜庵)과 고향을 함께하고  
 나 심심산골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남을 자랑한다.  
 고관대작 명문거족의  
 가문 이상으로 자랑한다.

당신들이 어떻게 손가락질 하든  
 절세의 충절 포은(圃隱)의 님이 문헌  
 평화의 고을 용구처인(龍駒處仁)에 태어나  
 여름이면 김량(金良)천에서 붕어 낚고  
 가을이면 삼봉(三峰)산에서 밤 따던 추억을  
 왕관 이상으로 고이고 또 고인다.

세상이 뒤바뀌고 하늘이 조각 나도  
 나라의 기틀을 가늠한 반계(磻溪)의 슬기가  
 숨쉬는 빼어난 산천, 경기의 분수령  
 곡창이요 또 숲의 고장  
 내 고향을 아끼고 아끼리





# 빛깔

안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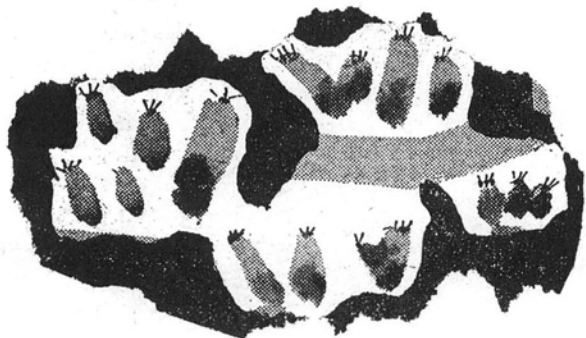
내가 문 밖에서 울던  
재빛의 우울한 날에  
당신의 노란색 평화를 본다.

내가 보라빛의 교만으로 타인을 거부할 때  
당신은 파란 하늘로 다가와  
용서의 덕을 일깨운다.

내가 진홍빛  
가슴 앓이를 하면  
당신은 같은 색의 진달래로 와  
꿈을 주는 한 사람이 된다.

내가 검은색으로  
밤을 고뇌할 때  
당신은 흰색의 아침으로  
나를 위로한다.

당신은 평화의 색깔  
나는 고독의 빛깔로  
그림을 그린다.  
사랑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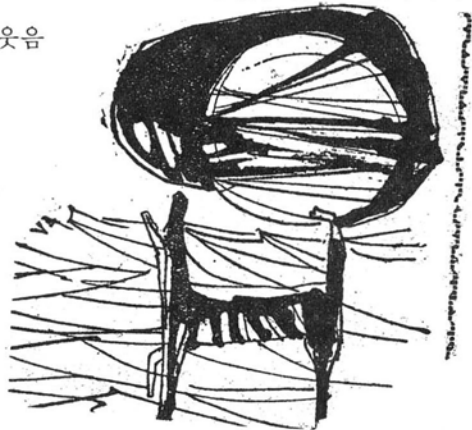


### 第三의 孤獨

朴 商 敦

人波 넘치는 거리에서  
담배를 피워 물고  
취기어린 눈으로  
나를 남 보듯  
남을 나 보듯  
세상에 한 아름 마음 던진다.  
  
더러 하나썸  
온기어린 시선을 기대하나  
아무런 波汶도 변지지 않고  
메아리를 돌려보낼 계곡마저 없어  
갈등만 더한 채  
그냥 날아가는 공허한 웃음

간혹  
나는 모두가 될 수 있어도  
모두를 내가 되게 하지 못하는  
서툰 詩人의  
음울한 고뇌여.  
  
그래도 못다한 아쉬움 남아  
새 담배에 불 붙이고  
나를 남 보듯  
남을 나 보듯  
자꾸만 세상에 마음 던진다.  
人波 넘치는 길목에서 ….



# 겨울이 봄에게

李 吉 浩

가슴은 찢어진 바람 소리

눈은 입을 말하고

입은 눈을 말하고

‘성선설’은 빛을 앓고

‘순자’의 설(說)에 박수를 보냈다.

‘데, 칸, 쏘’는

오후의 햇살을 뒤로 한 채

길게 숨을 췄다.

겨울이 봄에게

황설수설

인생 철학 뿐이라고.



P.S 데, 칸, 쏘

(데카르트, 칸트 쏘편하우어의 작품들 및 사상)

1986. 2. 17



살얼음 위로 돌진하는 사나운 日常  
우리는 알지 못한다.  
얼마만한 크기로 우리를 휘젓는가를  
잔기침이 이는 밤이면  
전신으로 감겨오는 風谷을 받들고  
조그만 오염을 삼킬 수도 있다.  
거리로 사나운 人羣이 江을 이루고  
우리를 삼키려는 커다란 입  
당당히 진군하는 가없는 우리 발들은  
한 여름날의 파리 날개짓  
우리 움추린 발걸음이  
얼마나 자그만 열기인가.  
어느날 부터인지  
철새없이 퍼뜨려 대는  
대지의 재채기  
가느다란 나무줄기에  
내 가느다란 인식을 붙들어 매고  
망속을 들여다 보고 있을 때  
참으로 깊이 파묻히던 내 의지의 얼굴  
거리에 나뒹굴던 얼굴, 일상의 조각들  
진홍 빛 날들  
잠자리 날개처럼의 의지와 그리고  
사나운 日常의 풍속들이  
함께 어울려 홍조를 띠고 퍼뜨린다.







# 書 藝 小 考

金 東 海

人間의 精神世界를 極限으로 空間에 압축한 藝術로는 따를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書如其人」이라고 하였듯이 서예는 작가의 개성 세계가 가장 如實하게 表出되는 예술이다. 그러므로 서예는 오랜동안 研磨한 스스로의 實力외에 남을 欺瞞하는 塗抹이나 技巧가 통하지 않는 예술이다. 그러므로 타고난 손재주나 단순한 숙련만으로는 字匠 즉, 글씨쟁이에 떨어지고마는 것이 또한 서예인 것이다. 그러므로 글씨를 단순히 筆墨으로 변화무궁의 예술 세계로 昇華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점에서 서예는 精神世界의 진수를 최대 公約수로 표현한 예술중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생각컨데 서예라는 예술은 漢字가 생긴 이래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大家들에 의해 書體의 변천을 거듭하면서 사람의 마음의 아름다움이나 깊이를 표현하는 동양 고유의 예술로 발전해 왔다. 근대 문화생활의 내용이 짐짓 변용되면서 서예는 쇠퇴일로로 걷고 일부 전문인들 이외에는 거의 일상 생활에서 잊어버리다싶이 되었으나 요즘에 와서 정서 생활에 정신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것을 되찾으려는 운동과 함께 붓글씨를 익히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며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서예는 文字를 審美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예술이다. 붓글씨는 일반적으로 中國에서는 書法, 일본에서는 書道, 우리 나라에서는 書藝라 부르고 있으나 그 개념은 같은 것이다. 원래 漢字는 그림문자(繪畫文字)를 추상화해서 表意化했고 또 추상화한 文字를 맞추어(六書 指事, 形聲, 會意, 轉註, 假借 등의 方法에 의하여) 어떠한 文章이나 말로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문자요, 또한 繪畫와 더불어 긴밀히 융합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中國古代時代의 漢字 형성의 과정에 있어서도 미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시각 예술로서 審美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漢字 자체내에 내재(內在)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中國이나 우리 나라에서 書藝가 특수한 예술로서 발달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中國 唐代의 大書家인 孫過庭(687)의 書譜는 書論으로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거니와 그 서론(書論)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원문 생략)

「運筆의 妙는 自身의 연찬과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모름지기



글씨를 배움에 있어서는 그 규범으로 眞蹟이나 書帖(法帖)으로써 고인의 筆蹟을 반드시 눈여겨 살펴보아야 한다(臨書). 만약 임서를 했을 때 여기에 一毫의 차이가 있더라도 千里를 隔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眞隨인 術法을 올바르게 제대로 터득만 한다면 다른 書體에도 두루 兼通하게 될 것이다. 글씨를 제대로 배우려면 글씨 공부를 꺼려하거나 멀리 하지 아니하고 무르익도록 거듭 연습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運筆이 精熟을 다 하고 書法을 體得하게 된다면 붓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意先筆後 별꺼리낌 없이 붓이 生動하고 마음은 飛翔하는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마치 心計(財理)의 名人인 桑弘羊이나 解牛의 名人이던 庖丁(庖丁)이란 사람과 같이 글씨도 그 術과 藝가 入神之境에 이를 것이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각 시대의 훌륭한 작품을 비교 연구하여 그 연장에 자기를 놓고 觀照하며 현재의 書作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견한 일이 아니다. 결국은 書藝가 갖는 어느 쪽의 方向을 추구하게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일단 알아두고 싶은 일, 하고싶은 작품 활동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어느덧 書藝實力이 늘고 드디어 書家로서 一家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註：如初先生壬戌展 序文 및 西峰先生 書와 件反射의 修鍊 및 孫過庭 書譜 참조)

## 李朝 女人

영지희 꽃꽂이  
사범 오민근

素材 : 산당화 다래덩굴 아네모네 칼라

花器 : 백자 항아리

花型 : 직립 자유형

靑玉빛 항아리에

꽃가득 담았네

귀족적이면서도

요염함이 가득하여라

예술과 자연을 마음껏 노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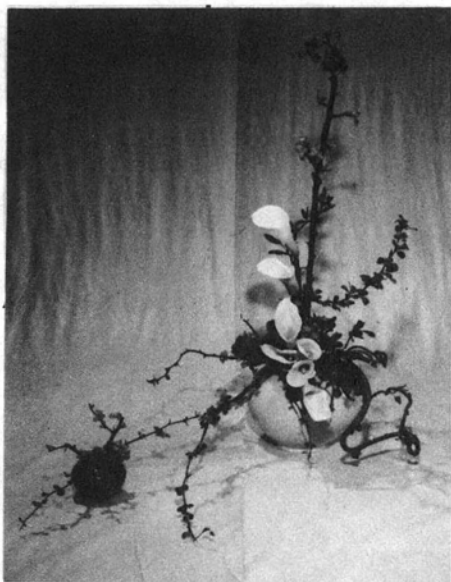
멋스런 기교에 사랑을 담아

어여쁨과 우아함이 하모니를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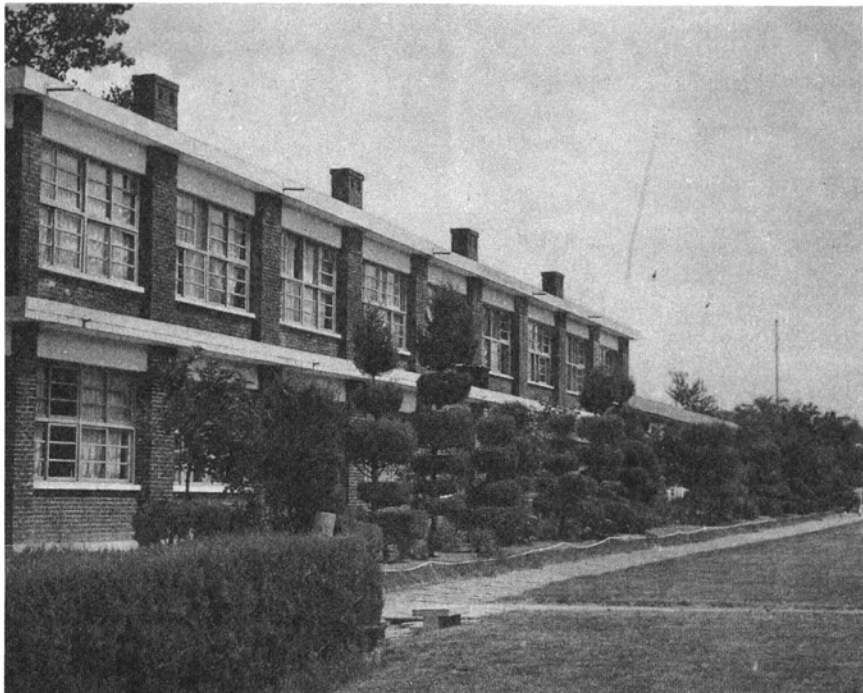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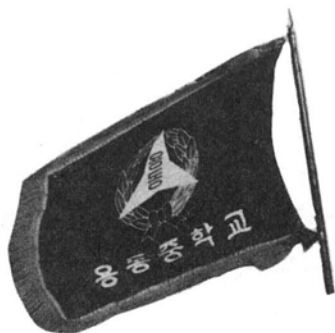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이 주옥같아라.

※ 꽃는 법

한복으로 곱게 단장한 새아씨를 연상케하는 산당화를 주지로 선택하여 信 1 주지를 0°에 꽃게 꽂아주었다. 부드럽고 자연스런 선을(知) 2 주지로 선택하여 오른쪽 앞열 120°로 안정감있게 고정시켰고 3 주지(仁)는 힘찬 생명의 즐기같은 다래덩굴의 멋을 살려 왼쪽 앞열 100°에 꽂아 선의 율동감을 잘 살려 주었다. 칼라꽃 제일 예쁜 것 선택하여 Point로 하고 구성된 삼각형 정 가운데에 1 주지에 1/2로 재어 꽂는다. 단 한송이 Point에 3/4으로 꽂고 Point에 3/4으로 재어 Point 앞에 5 송이 칼라꽃으로 다이아몬드형을 형성한다. 남은 공간은 아네모네 꽃으로 크고 작게 꽂아 조화있게 처리한다. 너무 엄숙한 분위기를 도와 작은 항아리에 산당화선이 서로 어울리지게 꽂아 기교 있게 처리했다.



<학교순례> 



1. 학교명 : 용동 중학교
2. 학교장 : 김 이 진
3. 소재지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164

4. 연 혁 :

- 1952. 2. 25. 학교 법인 신생 학원 설립 인가
- 1952. 4. 1. 신생 중학교 개교  
제1대 안 의훈 교장 취임
- 1955. 3. 27. 신생 농업 고등학교 설립 인가
- 1955. 3. 30. 중학교 제1회 졸업식
- 1962. 3. 24. 고등학교 폐교 인가
- 1962. 9. 1. 제2대 김 이진 교장 취임
- 1964. 5. 1. 교사 이전
- 1975. 11. 3. 제5대 최 대식 이사장 취임
- 1979. 3. 8. 산업체 특별 학급 인가
- 1983. 2. 28. 산업체 특별 학급 폐교
- 1985. 2. 7. 제6대 이 무일 이사장 취임
- 1986. 2. 14. 제32회 졸업(총 2,876명)

5. 교육 목표

- ① 나라를 사랑하고 충·효·예 정신을 지닌 사람을 기른다(애국인)
- ② 기초 학력을 닦고 익혀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을 기른다(실력인)
- ③ 자주적이고 근검,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른다(협동인)
- ④ 소질과 기능을 계발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기른다(생산인)
- ⑤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활동력이 강한 사람을 기른다(건강인)

6. 학교 상징

- 교훈 : 근면, 협동, 성실
- 교화 : 개나리
- 교목 : 은행나무
- 교조 : 비둘기

7. 학교 현황

학 생 현 황			졸 업 생 현 황	교 직 원 현 황
1 학년	3 학급	150 명	32회 2,876 명 (1986. 2. 14 현재)	교 원 14 명
2 학년	2 학급	126 명		일반직 3 명
3 학년	3 학급	131 명		
계 8 학급 407 명				계 17 명

## 8. 학급 교육 현황

### 가. 학교 특색

#### ① 전교생 기악 합주

- ㉠ 고적대 운영 : 58 인조 고적대 활동
- ㉡ 건전 노래 부르기 : 매일 종례시 전체 합창 후 귀가

#### ② 민속 무용 활동

- ㉠ 고전 무용 지도 : '85 학년도 경기도 대회 참가
  - 1. 한국 군무 부문 1 위
  - 2. 외국 군무 부문 1 위
  - 3. 한국 독무 부문 3 위
  - 4. 외국 독무 부문 장려상
- ㉡ 농악대 조직 운영 : 학도 새마을 체육 대회 1 위 입상

#### ③ 학교 공원화

- ㉠ 잔디밭 조성 : 운동장 및 화단 전체에 잔디 조성
- ㉡ 생울타리 조성 : 개나리, 은행나무, 향나무, 은사시나무 등으로 2 중 울타리 조성

### 나. 노력 중점

#### ① 학력 향상

- ㉠ 경기도 학력고사 목표 : 70 점 ('85 학년도 68 점)
- ㉡ 학습 부진아 지도 철저
- ㉢ 협력 학습제 실시 (성적 우수자와 부진아 좌석 배치)
- ㉣ 학년 완성 교육 실시
- ㉤ 전교사 수업 연구 실시

#### ② 생활 예절 지도

- ㉠ 기본 생활 습관 지도 : 매일 종례시 방송을 통한 훈화 지도
- ㉡ 언어 순화 지도 : 고운말 쓰기

#### ③ 독서 지도

- ㉠ 학급 문고 운영 (학급당 180 권)
- ㉡ 매월 2 권의 도서 읽고 독후감 쓰기
- ㉢ 독후감 및 기행문 낭송 대회

#### ④ 1 인 2 악기 지도

- ㉠ 전교생이 피리, 하모니카 연주
- ㉡ 학급별 기악 연주회 실시

⑤ 생활 영어 지도

- ㉠ 전교생에게 방송을 통하여 조회, 종례 시간에 생활 영어 지도
- ㉡ 매월 생활 영어 대회 실시
- ㉢ 향토 독본(영문판) 지도
- ㉣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실시
- ㉤ '85 학년도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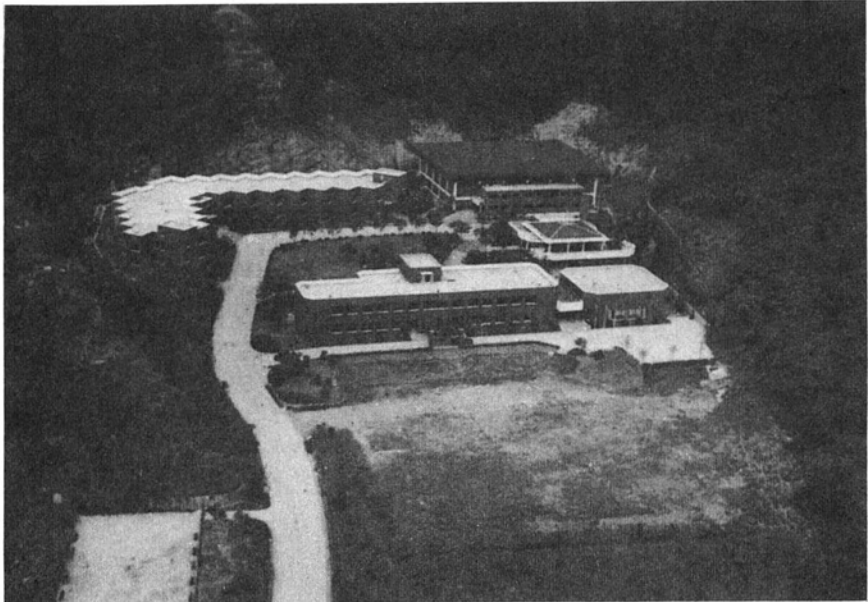
1. 용인 문화원 주최 영어 대회 1 위
2. 용인군 교육청 주최 영어 말하기 대회 1 위
3. 용인군 교육청 주최 향토 독본(영문판) 암송 대회 1 위, 3 위

다. 우리의 맹세 : 학급별로 조회, 종례 시간에 전체 학생이 낭송함으로써 각자의 마음을 다짐한다.

- ① 우리는 실력을 높인다.
- ② 우리는 고운말을 쓴다.
- ③ 우리는 인사를 잘 한다.
- ④ 우리는 비품을 아낀다.
- ⑤ 우리는 교칙을 지킨다.

라. 장학생 현황

장 학 회 명	학생수	후 원 자	비 고
지 곡 장 학 회	18	신생학원이사장	중학생
예 섭 장 학 회	6	동우양행사장	"
양지신용협동조합장학회	2	양지신용협동조합장	"
해 동 산 업 장 학 회	1	해동 산업주식회사	"
교 직 원 장 학 회	3	교 직 원	"
남 곡 장 학 회	1	삼화페인트(주)회장	대학생



興國生命研修院 全景

社 訓

「創意力の開發」

「責任所在의 確立」

「業務의 専門化」



鄭景植 研修院長

## 흥국생명 연수원

흥국생명 연수원은 용인군 소재지에서 수원 방면으로 약 6km 지점인 구성면 상하리 산 46~5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옛부터 자연 부락 명칭으로 「민재궁」이라 칭하는 곳에 소재한 이곳 연수원은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려 건물



뒤로 산이 병풍같이 드리워져 있고 정남향으로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다.

45,000 평의 부지에 웅장한 자태를 보이고 있는 이 연수원은 본관이 지상1, 2층의 512 평에 대강당과 대강의실, 중강의실, 분임토의실 등이 있고, 생활관은 지하와 지상 1, 2층에 928 평의 건물에 침실, 목욕실, 오락실 등 3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어 쾌적한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체육관은 지하와 지상 1, 2층에 414 평으로 배구, 농구 경기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170 여명이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다.

식당은 지상 1, 2층에 194 평으로 휴게실과 200 여명을 동시에 급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밖에 부대시설로 수변전 시설 및 자가 발전 시설, 난방, 소방 시설, 공기 조화 시설, 방송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가히 인력 개발의 전당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연수원의 정 경식(鄭景植) 원장은 인재를 찾는다라는 광고문을 볼 때마다 야릇한 이질감을 느낀다며 인재란 계속 갈고 다듬어 주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지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를 최고 경영자의 인재 양성에 대한 오랜 염원이 자체 연수원을 건립하게 된 근본 취지라고 말한다. 단적으로 살필 수 있는 인재관은 「기업은 인재를 키우고, 인재는 기업을 키운다」라는 연수원 현관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고 느낄 수 있다.

1984년 5월 준공이라 이제까지 2 만여명에 달한 전 한국인이 거의 장단기의 각종 교육에 참여 하였다고 한다. 어느 조직이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치 못하는 곳은 없겠지만 특히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 독특한 상품 개발에 의한 자유 경쟁 원리가 여러 모로 제한되고 있는 보험 시장에서 인간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社訓이 창의력 개발, 책임 소재의 확립, 업무의 전문화」로 이를 여하히 실천적 견지에서 전 조직 구성원에게 침투시키느냐 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키 위해 잠시도 율틈 없이 부단한 연구와 노력에 몰두하는 교육팀들의 열의를 강의장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은 자극적인 종래의 주입식 치중에서 벗어나 인간 내면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이론을 병행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분임 토의, OJT 및 극기 훈련에 두고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채 유한 인생을 영위하는 인간의 개발이란 끝없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노력하는 「곳」과 「사람」이 늘어갈 때 미래는 한층 활기차고 밝아지리라고 생각된다」며 鄭景植 원장은 인력 개발을 위한 연수원의 필요성을 재 강조한다.

## 참 友 情

박 민 응

친구라 함은 마음이 서로 통하여 친하게 사귄 사람을 일컫는다. 흔히 우리는 친구라 하면 국민학교부터 사귀어 온 학교 친구, 술이 인연이 되어 맺어진 술 친구, 군 생활에서 가깝게 지낸 전우인 군대 친구, 사회 생활을 하며 사귄 사회 친구 등 다각적으로 사귀게 마련이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을 칭할 때에는 죽마고우(竹馬故友)라고 한다. 이렇듯 친구의 사귀어 어려서부터 점차 성장하면서 친구 사귄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친구가 바람직한 친구일까?

옛말에 일생동안 다정한 친구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우리 주위에는 서로 술이나 기타 음식을 함께 할 때에는 죽자살자 할 정도의 친구는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사귄 친구 중에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과연 도와줄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명심보감의 교우편에

「不結子花는 休要種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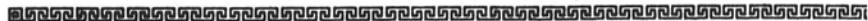
無義之朋은 不可交니라」 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는 뜻으로 의리없는 친구란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게되므로 의리없는 벗을 사귀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듯 옛 사람은 친구를 사귀에 의리를 중히 여기었던것 같다. 역시 친구는 서로 부담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을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으며 서로간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또한 진실된 친구라 하면 잘못된 일을 충고 하였을 때 노여움없이 고맙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의 의리에 대하여 옛날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이 선비는 신의로 맺은 친구가 몇 있었다. 그런데 선비의 아들은 밖의 일은 전혀 모르고 글 공부에만 열중하는지라.

어느날 선비가 아들을 불러,

「야야, 글 공부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자면 사람 사귀는 것도 글 공부만큼 중요하니, 머리도 식힐겸 밖에 돌아가는 실정도 알고 친구를 사귀어 보도록 하여라」하니, 아들이 그날부터 부친에게 용돈을 두둑히 타 가지고 밖에



나가보니 생전 밖이라고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생소하여 타 가지고 나온 용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집에 돌아온지라. 딱하게 생각한 부친이 아들 보고 돈 쓰는법과 친구 사귄만한 곳을 알려주니 그날부터 투전판이다 활터다 기방 출입 등 부친이 준 용돈을 몰쓰듯하며, 못 사람을 대하니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사람 나쁘다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기를 얼마간 지난 후 부친이 아들을 보고,

「그간 친구를 얼마나 사귀었느냐?」

물으니

「예 술 친구며 놀이 친구 등 수없이 많이 사귀었습니다」하니

이에 부친은

「네가 사귄 친구 중에 진정으로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복과 재앙을 나누어 가질만한 친구가 몇이나 되겠느냐?」물으니,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

「친구는 많지만 저하고 죽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는 대여섯쯤 됩니다」며 자신있게 대답한다.

「네가 그간 그러한 친구를 두었다니 참으로 대견하다. 하지만 옛부터 사람의 마음은 가장 어려운 경우를 당하여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니, 그러한 친구를 시험하는 것은 안된 일이지만 한번 애비와 함께 네 친구의 진심을 시험해봄이 어떠하냐?」하니, 아들은 부친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 마음으로는 못내 섭섭하였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이유도 없어 그렇게 하겠노라 했다.

이날 선비는 사람을 시켜 살찐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먹음직스럽게 잘 삼도록 하였다. 그리고 잘 익은 술 한항아리와 함께 돛자리로 사람 죽은 시체같이 길다랗게 싸 묶었다. 밤이 깊어 자정이 지나자 선비는 삶은 돼지와 술 항아리를 아들에게 지우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 우선 네가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친구 집부터 가자. 나는 뒤에 숨어 있을 터이니 친구에게 이리 이리 하라」하고 시키니, 아들은 부친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하고, 친구의 집 사립문을 두드리니, 이 친구 아닌 밤 중에 갑자기 찾아온 이 아들을 보더니 깜짝놀라며 「대체 무슨 일이기에 소식도 없이 별안간 밤중에 어인 일인가? 그리고 등에 짊어진 허연 것은 무엇인가?」물으니, 이 아들 당황하듯 난색을 하며 「여보게 실은 어찌다 사소한 시비끝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 급한 대로 경황이 없어 시체를 이렇게 떼메고 왔으니 우리 우정을 생각하여 시체를 매장해주고 나도 어디 좀 숨겨주게나 그 은혜는 잊지 않겠네」하며 부친이 시킨 대로 하니, 이 친구 낮빛이 변하여 두 손을 뻗어 저으며 하는 말이 「어허 낭패로군, 어찌다 그런 일을 저질렀나. 자네 어려운 처지로 보나, 우정을



생각해서는 도와주고 싶네만 우리 집에는 지금 우환이 있어 안되겠네」하며 한마디로 거절하고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린다. 이에 뒤에 숨어있던 부친이 다가와 「어허! 아니 그런 매정한 친구 보았나, 허는 수 없지 않느냐, 다른 친구네로 가보는 수밖에」하며 다른 친구를 찾아가 사정을 하여 보았으나 역시 처음 친구와 같이 처음에는 동정하는 척하면서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문을 닫아버린다.

이어 또 다른 친구집을 하나씩 차례로 찾아 다녔지만 전부 짙어진 돼지와 술 향아리를 송장으로 알고 아예 피해버린 것이다. 이에 부친은 「네가 가장 믿는 다던 친구들로부터 문전 박대를 당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친구 집에 가 보도록 하자」며, 아들이 걸머졌던 짐을 받아진 후 앞장서 친구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니 선비의 친구는 「아니, 야심한 밤중에 웬일인가? 필시 무슨 큰 일이 생긴게 분명한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하며 만나기가 바쁘게 대문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다.

이에, 선비는 선뜻 들어가지 않고 「실은 내가 노망이 들었는지 어쩌다 실수로 그만 사람을 죽였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나」하며, 한숨을 쉬며 「내 등에 짊어진 것이 바로 그 송장일세」하니, 이 친구왈, 「그건 그렇고 얼마나 놀랐겠나, 그 송장은 나에게 말기고 우선 방에 들어가 놀란 가슴이나 가라앉히고 있게나. 내가 곧 송장을 으숙한 곳에 숨기고 올테니」하며, 짐을 벗기려 하니. 「그렇게 하다간 혹 자네한테 누가 미칠가 염려네」.

「원 별소릴 다하네, 우리가 어디 그런 것 따질 사이인가? 자네 일이 곧 내일 아난가. 다른 사람 눈치채기 전에 어서 빨리 송장을 나에게 벗어주게」. 친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정과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제야 부친은 아들을 돌아다 보고 「어떠냐, 나의 친구와 네 친구를 과연 비교할만 하느냐」며 낄낄 웃는다. 친구는 어리둥절하며 영문을 몰라하는데, 「별안간 자네를 찾아와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실은 이만 저만하여 아들 녀석에게 참된 친구가 과연 어떤 친구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 꾸며본 일이라네, 자, 이것은 먹기 좋게 잘 삶은 돼지와 입에 맞게 잘 익은 술이라네. 우리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이술과 푸짐한 안주로 한껏 먹고 즐겨보세」하며, 두 老友는 호쾌하게 웃는다. 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 3.1 운동 실록

편자 이 옹락  
자료제공 박 옹익



### ■ 龍仁郡 水枝面 의거

각처에서 독립 만세 시위운동에 총궐기한 정보를 받은 水枝面 古基里 安鍾珏은 선동자가 되어 각 부락에 선언서를 배포하여 三月 三十일에 의거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약속한 그날 면민 六百여명을 인솔하고, 풍덕천에 있는 면사무소 앞에 집합하였다. 태극기를 면사무소 마당에 높이 올리고, 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三창하니, 六百여명의 군중이 일제히 호응하였다. 잠시 후, 면사무소로 들어가서 면장과 서기에게 참가 협조하기를 종용하니, 면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응낙하고, 직원과 같이 합세하여 한길 도로가 복잡할 만큼 인파가 되어 만세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였다. 이때 器興面에 거류하던 日本인들이 이 시위대를 제지하러 온다는 정보가 있었다.

安鍾珪은 분노하여 「거류인 왜놈들이 하감으로 우리 의거를 방해할 것이냐? 저놈들을 타도하자.」 고성으로 외쳤다. 곧 군중을 인솔하고, 器興面 일본 마을로 향할 때 보무가 당당하였다. 중간 지점에 이르니, 물방앗간에 숨어 대기하고 있던 왜놈들이 군중을 향하여 무차별 총을 쏘는 바람에 安鍾珪이 명중(命中)되어, 울분을 품은 채 절명되었다. 군중은 독살이 나서 「저놈 日本人이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를 잡아 죽이자!」 고함을 치며, 날뛰니 그놈들도 당황하여 도주하는 그때에 龍人읍 헌병대 보조원 崔順九도 끼여 있는 헌병기마대 十여명이 달려와서 핏덩어리가 된 시체를 안고, 또는 부상자를 간호하는 군중에게 총을 쏘아 또 다시 중경상자를 내고 駒城面 崔又芻도 피살되었다. 유흥이 임리하는 시체 운반과 부상자 호송에 곡성이 천지를 진동하였으며, 울분한 군중들은 四방으로 해산하며 더 날뛰지 않고 동정만 살피고 있었다. 울분을 참지 못하여 해산했던 군중은 밤 九시부터 星福里 갈모산, 新鳳里 관묘산, 土月里 곰두래산, 駒城面 자지산, 寶亭里 이집봉, 磨北里 보패산 등의 산위에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부르니, 화광이 충천하였다. 헌병들은 밤중이요, 또 고봉태산이라, 하는 수 없이 경비만 하다가 다음날 아침부터 헌병 수비대가 합세하여 각 동리로 돌아다니며, 남자는 모조리 체포하여 龍仁 헌병대에 구검하였다. 혹독한 고문 취조 끝에 혹은 방면되고, 혹은 태형 三十도 정도로 석방되고, 주동자 十六인은 경성 지방 법원으로 치송되어 태형에 그치고, 李德均만은 西大門감옥에서 一年六월 복역하였다. 순사한 安鍾珪의 유족으로 손자 安秉華가 열렬한 조부의 애국 정신을 가슴에 되새길 뿐 국민의 추모하는 위령비도 없음이 유감이다. 당시 관련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被 殺 者

安鍾珪 龍仁郡 水枝面 古基里  
 崔又芻 龍仁郡 駒城面 寶亭里

受 刑 者

李德均	一年 六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水枝面 古基里
權丙璇	笞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陳器回	笞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金顯周	笞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金英石	笞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李喜大	笞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李達淳	答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尹萬釗	答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千山玉	答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崔忠臣	答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鄭元圭	答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洪在澤	答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古基里
金元培	答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李道海	答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古基里
姜春錫	答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尹昇晋	答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南廷 <sub>延</sub>	答 九十	京城地方法院	龍仁郡 水枝面 東川里

〈위 사실을 확인함〉

龍仁郡 水枝面長 李英秀 印

이 사실은 東川里 李容元(七二)과 유도회 지부장 鄭命洙(七〇)의 증언

## ■ 龍仁郡 遠三面 의거

佐恒里 李鳳鉉은 京城 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교원 양성소에 수업 하던 중, 三·一운동 전개될 때 학생 단체에 참가하여 수일간 시위하다가 고향인 좌항리 본지에 돌아왔다. 그는 각 동리에 의거할 동지를 많이 규합하였다.

三月 三十一日 佐恒리에 집합하여 독립 선언식을 거행할 때 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고창하니 수백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일제히 호응하였다. 의기양양하게 文村, 沙岩, 古塘 등 각 부락을 돌아다니며, 석양까지 시위하였다. 계속하여 九峰산, 독조산, 水晶산 등 산 위에 봉화를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르니, 각 동리에서도 호응하여 남녀노소가 모두 만세를 불렀다. 밤 열시경에 外四面으로 향하는 도중 「비둘기」 고개에서 용인헌병대와 충돌되어 어두운 밤 산골에 총소리만 요란한데 四방에서 「사람 죽었다。」 하는 소리와 총소리가 연속하니, 군중은 나무 숲 사이로 도피하고, 사상자는 부지기수였다. 다음날 왜병들이 각 부락을 돌아다니며, 주동자로 인정된 사람을 용인 헌병대로 구인하여 악독한 고문취조 끝에 경성 지방 법원으로 송

치되어 각각 형을 받고, 西大門 감옥에서 복역하였다. 이때 李鳳鉉은 도피하였고, 吳義善은 출옥 후, 초지를 변하지 않고 계속하여 上海 임시 정부로 연락하면서 군자금 모집에 주력하다가 또 다시 구검되어 八개월 형을 받아 복역 중 옥사하였고, 李殷杓은 고문 여독으로 옥사하였다. 관계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獄死者

吳義善 李殷杓

受刑者

吳義善	一回 三年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竹陵里
	二回 八月				
李殷杓	十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孟里
崔相根	十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沙岩里
李寅夏	十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孟里
安明玉	十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沙岩里
黃敬俊	十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金殷秀	十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沙岩里
金性男	六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金昌淵	六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沙岩里
金甫熙	六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萬井里
姜信福	答九十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沙岩里
韓昇源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加佐里
李容煥	六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李象喆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文村里
李熊漢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金永達	六月	西大門監獄	龍仁郡	遠三面	沙岩里
李殷商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文村里
許忠答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加佐里
金日春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加佐里
朴熙績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加佐里
李秉淵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加佐里
李泰鉉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加佐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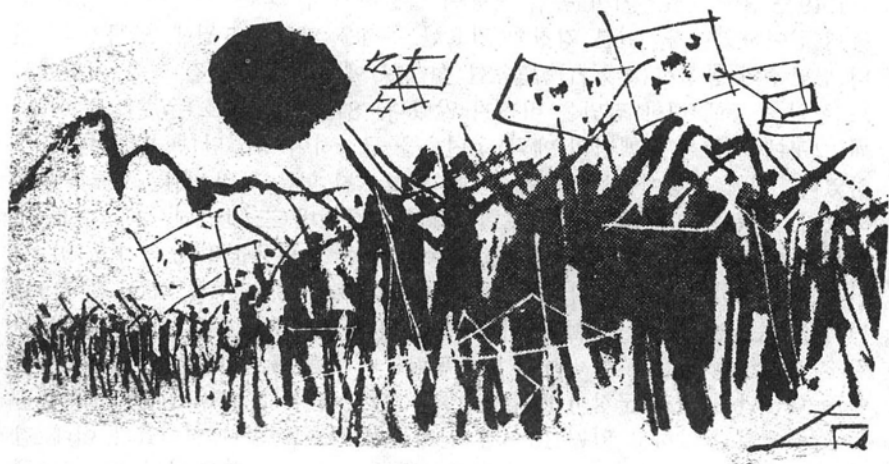


李範驥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加佐里
吳慶烈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文村里
張志善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張秉植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趙龍山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黃德佐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黃瓚景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邊用燮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朴興俊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徐千吉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文村里
安佐燮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文村里
林興道	答九十	龍仁憲兵隊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

범죄인 명부 기재되었음을 확인함

龍仁郡 遠三面長 李圭南 ㉞

〈이 事實은 佐恒里 李台鉉(72)의 證언〉



## 만주에서 독립 운동을 전개한 김혁(金赫)

(1875-1937)

본명: 학소(學韶) / 호: 오석(吾石)

김 혁은 1875년 10월 6일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던 그는 4년여동안 집안에서 한학(漢學)을 배운 다음, 용인 학원(龍仁學院)을 거쳐 1892년 3월에 한국무관학교(韓國武官學校)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3년동안 군사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과 동시에 육군 보병 참위(陸軍步兵參尉)로 임관되었으며, 순조롭게 진급되어 육군 참령(參領)에까지 이르렀다.

1907년 우리 나라를 합병(合併)하기 위한 야심으로 일본인들이 군대를 해산케 하자, 김 혁은 울분을 참을 길 없어 통탄하며 일본 제국에 대항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을 다짐하였다. 군대 해산으로 할 수 없이 고향인 용인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는 용인 주변의 청년들을 하나 하나 규합하여 항일 사상 고취와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 운동이 발발하자 김 혁은 앞장서서 시위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여 5월에 압록강을 건너 남만주의 봉천성(奉天省) 무송현(撫松縣)에 이르렀다. 김 혁은 이곳에서도 항일 운동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다. 8월에는 김 호(金虎) 등과 함께 그곳에 거주한 수백명의 애국 청년들을 규합하여 흥업단(興業團)을 조직하였다. 이때 단장에는 김 호가 추대되었고, 김 혁은 부장(副長)으로 선출되었다. 이듬해 9월 경에는 안도현(安圖縣) 삼인방(三人坊)에서 홍 범도(洪範圖)·이 청천(李青天) 등 수백명의 동지와 함께 의용군을 조직하고 또 부단장으로 뽑히어 맹렬히 활약하였다. 청산리(靑山里) 전투를 겪은 후, 1921년 1월에는 영안현(永安縣) 밀산(密山)에서 서 일(徐一)·홍 범도·이 청천·김 좌진(金佐鎭) 등과 합세하여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을 조직하였다. 이 독립군단은 서로 군정서(西路軍政署), 북로 군정서(北路軍政署), 의용군 등 만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10여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다. 이때 김 혁은 군사부장(軍事部長)으로 선출되어 활약하였으며, 1922년에는 러시아

영토에서 일본 군사와 대항하여 싸우다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김 혁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1925년 3월 15일 영안에서 김 좌진 장군과 함께 신민부(新民府)를 조직하고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신민부에서 목릉현(穆陵縣)에 성동사관학교(城東士官學校)를 설립하였을 때 김 혁은 교장직을 겸하기도 하였으며, 500여명의 사관생도를 양성하여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45만명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였다. 그 후 다시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을 조직하여 중국의 구국군(求國軍)과 합작으로 한중연합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1927년 2월 중동선(中東線) 석두하자(石頭河子)에서 신민부 총회를 개최하던 중 하얼빈의 일만경(日灣警) 합동 수색대의 습격을 받아 이곳에 모였던 박 경순(朴敬順)·유 정근·이 춘섭(李春燮) 등 여러 애국 지사와 함께 체포된 김 혁은 하얼빈 일본 영사관 경찰서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1년동안 이곳 경찰서에서 감금된 후 1928년 3월 20일에 신의주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4일에는 신의주 지방 법원 감사국으로 송치되어 감금당하였다. 1928년 6월 13일에 있었던 최종 판결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김 혁은 평양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獄苦)를 치르며 심한 고문에도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부하로 있던 애국 청년 한 명이 체포되어 자신의 감방으로 들어오게 되자, 김 혁은 일본 경찰을 불러다 놓고 “내가 아무리 붙잡혀 감금되어 있는 몸일망정 애국 지사도 아닌 청년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소리쳐 꾸짖으니 일본 경찰은 이 말을 끝이듣고 그 청년을 다시 조사한 후 몇일 뒤에 석방시켰다는 일화가 있다.

이처럼 잃어버린 조국의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멀리 만주땅에서 활약하였던 애국 지사 김 혁은 9년간의 옥고를 겪는 중 신병을 얻어 가석방되었으나, 1937년 8월 25일 그가 태어난 기흥면 농서리의 생가에서 국권 회복의 한을 남긴 채 세상을 마쳤다.

1962년 그의 애국심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단장이 추서되었다.

## 교육 사업과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여준(呂準)

본명 : 조현(祖鉉/호 : 시당(時堂))

여 준은 평생을 교육 사업과 독립 운동으로 마친 애국 지사로 용인군 원삼면에서 태어났다. 1947년 7월 19일 혜화동에서 암살된 여 운형(呂運亨)은 바로 그의 조카이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남보다 먼저 신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여준은 정주(定州)에 있는 오산학교(五山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북간도(北間島)에 건너가 이 동녕(李東寧), 이 상설(李相尙)과 서전의숙(瑞甸義塾)을 세워 후진 교육에 힘썼다. 그리고 교육계에만 종사하였던 그가 독립 운동에 힘쓸것을 다짐하게된 것은 1907년 6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기 몇달 전으로, 여 준은 고종 황제로부터 비밀리에 임명을 받고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떠나는 이 준(李僑)을 자신과 함께 서전의숙에 근무하던 이 상설에게 안내하여 만나게한 인연으로 그들과 함께 독립 운동에 한 평생을 바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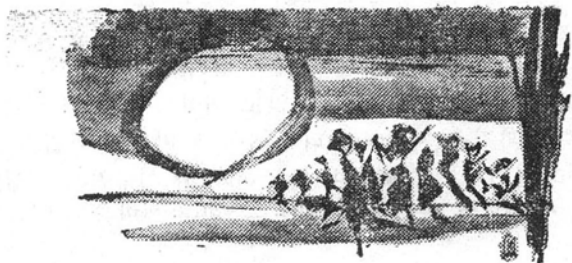
1910년 일제의 강압적인 조치로 한일합병이 체결되자 여 준은 그 이듬해 다시 북간도로 건너가 동여학교(東與學校)를 설립하여 교포 자녀의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1912년에는 만주의 통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로 이주하여 이 시영(李始榮) 등과 같이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세우고 교장으로 있으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 당시 여 준은 대종교(大宗教)에 입교하였다. 또한 허 혁(許赫)을 단장으로 하는 부민단(府民團) 조직에도 참여하여 그곳에서 이주 동포의 자활과 교육을 맡아보기도 하였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에 앞서 여 준은 정월에 김 좌진(金佐鎭)·박찬익(朴贊翊)·조소양(趙素昂)·손일민(孫一民) 등과 대한 독립 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를 조직하고 그 단체의 정령(正領)으로 추대되었으며, 같은 해 2월에는 국외에 있는 혁명 의사 39명의 연서로된〈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 부민단을 중심으로 유하(柳河)·통화(通化)·환인(桓仁)·집안(輯安) 등 각 현(縣)의 지도자들이 모여 유하현 삼원보(三

原堡)에서 남만독립운동(南灣獨立運動)의 총본영으로 군정부(軍政府)를 조직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주 동포의 자치 기관으로 한족회(韓族會)를 구성하였을 때 여 준은 간부직의 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 후 군정부는 임시 정부에 소속되어 서로 군정서(西路軍政署)가 되었는데 이때에도 여 준은 부독판(副督辦)으로 추대되었고, 한족회의 간부직도 겸하게 되었다.

1920년 12월 4일, 임시 정부 간서총판부(間西總辦府)의 총판으로 다시 추대된 여 준은 이듬해 재만학생(在灣學生) 교과서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이 탁(李洌)·김 동삼(金東三)·곽지(郭之)·이 진산(李震山) 등과 액목(額穆) 지방에서 이른바 〈액목현회의(額穆縣會議)〉를 열고 임시 정부의 개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서를 연서로 작성하여 상해의 임시 정부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독립 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공을 세웠으며, 1922년에는 액목현에 있는 검성중학교(儉城中學校)의 교장으로 다시 취임하여 후진 양성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처럼 한 평생을 후진 양성과 독립 운동에 바친 여 준은 1932년 만주 사변이 발발하였을 때 일본군과 싸우다 다친 상처로 인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장백산(長白山)에서 요양하다가 세상을 마쳤다.

여 준의 이같은 애국심은 뒤늦게서야 알려져 1968년 국민장(國民章)이 추서되었다.



# 지 경 단 기

하 주 성 제공

## ◎ 概觀

지경단기란 지경 다지기의 준말로 풀이되며 “地硬” 즉, 땅을 단단히 하기 위해 다진다는 뜻이다. 이 지경단기는 집을 짓기 전에 땅을 단단하게 다짐으로써 집을 튼튼한 지반 위에 세우기 위한 方法으로 요즈음에 이루어지는 基礎 공사의 한 過程이다. 하지만 이 지경단기는 터만을 다지는 것이 目的이 아니고 一種의 巫俗의 內容까지 곁들여 있어 터를 건드릴 때 土地神의 노여움으로 나타나는 동티(勸土)를 막기 위해 告祀床을 차려놓고 告祀를 드리는 祭儀式과 함께 이루어지는 特異한 형태의 民俗이다. 이러한 지경단기는 우리 나라의 全域에서 盛行했으며 그 중에서도 特히 연악 지방이 많은 江邊의 마을이나 海岸地方의 陞락에서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지경단기는 律動과 노래(지경소리)가 混合된 놀이로써 單調롭기는 하지만 이 辭說은 唱者마다 特異하게 나타나고 있어 民俗의 貴重한 資料이다. 이 지경단기는 最近까지 演戲된 地域이 많으며 이러한 理由로는 이 지경단기에는 農樂의 構成이 포함되지 않아 日帝의 유기 그릇 공출에도 地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며 또한 이 지경소리도 一種의 勞動謠로써 傳授가 쉽고 선소리와 후렴의 구분이 되어 있어 한 두 소절만 배우면 辭說만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지경단기는 마을 全体가 共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定해진 人員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自然的인 傳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約간의 變化는 나타나도 긴 時間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다른 民俗이 必然에 의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며 나타나는 것에 비해 이 지경단기는 人口가 늘어감에 따라 自然적으로 家屋이 必要하게 되 이루어지는 習俗이기에 그만큼 자주 演戲가 됐으며 또한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만큼 傳授가 용이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 龍仁의 지경단기

龍仁 地方은 最近까지 거의 全域에서 이 지경단기가 演戲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 演戲는 놀기 위함이 아닌 실질적인 지경단기이다) 慕賢面, 二東面 器興面, 內四面等地에서 불과 십수년 전만해도 이 지경단기를 했다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도 이 고장은 옛 風俗에 대해 깊은 연민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一部 地域에서는 이 地硬石을 집을 지을때 함께 使用해 집이 더욱 튼튼하기를 바라기도 했다.

(1) 人員 編成

이 지경단기의 人員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洞里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協同的으로 이루어지던 것이었으나 그것을 再演한다고 할 때의 構成 人員은 다음과 같다.

- 집주인 : 男女의 區別이 없어 1名이면 된다.
- 선소리꾼 : 북을 메고 장단을 치면서 선창을 부른다.
- 지경꾼 : 지경돌을 들고 지경다지기를 하며, 지경노래의 후렴을 받고 보통 8-12명으로 구성된다.
- 햇불잡이 :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경돌에 다칠 염려가 있어 지경꾼의 周圍를 밝히며 5~6명으로 構成된다.
- 기타 同里사람들 다수

이러한 編成 人員은 어느 地域이나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構成이며 때에 따라서는 선소리꾼도 북을 메지 않고 지경꾼틈에 섞여 지경줄을 잡고 선창을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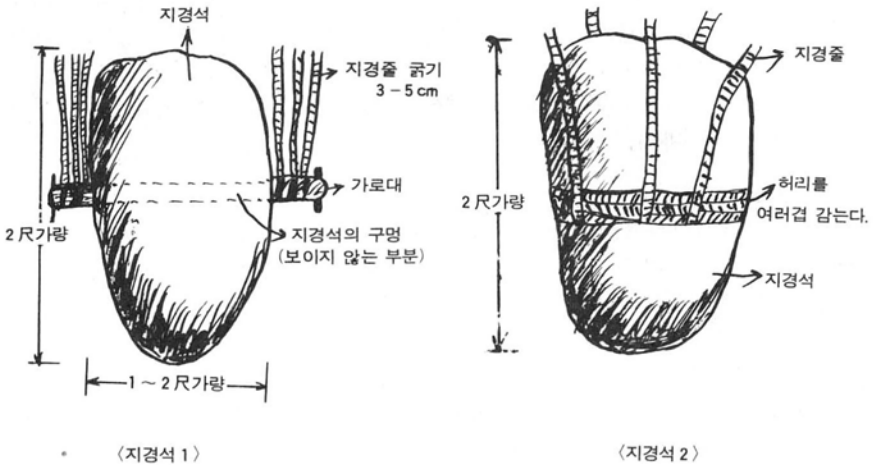
(2) 地硬石의 크기 및 형태

龍仁 地方의 지경돌은 대략 二種類가 있으며 크기는 높이 2尺에 넓이 1~2尺으로 그 하나는 지경석의 가운데 구멍을 뚫고 그곳에 나무를 꿰어 나무에 지경줄을 잡아매어 사용하는 것이 있고〈그림1〉 하나는 지경석의 허리를 여려걸 잡아 맨 다음 그곳에 지경줄을 연결해 사용하는 지경석이 있다〈그림2〉 이러한 지경석은 흔히 어느 地域이나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지역에 따른 特徵은 없다.

(3) 進行 方法

원래 이 지경단기는 어떠한 過程의 區分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順次的인 方法에 의해서 進行되며 이 지경단기는 단순한 의미의 집터다. 지기와 집터를 건드림으로 일어나는 동티를 막기 위한 巫俗的인 뜻의 復合으로 나타나는 儀式으로써 밤에 이루어진다. 이 지경단기가 밤에 이루어지

지경석의 모습



는 이유는 낮에 지경을 다지면 地神이 活動을 하지 않기 때문에 神에게 드린 告祀가 효과가 없어 밤에 地神이 活動할 때 (우리 나라의 巫俗 信仰의 대부분이 밤에 행해지는 理由도 이러한 뜻에서이다. 즉, 밝은 낮에는 鬼神이 活動을 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祭祀를 밤에 지내는 것도 靈魂도 밤이 되어야 나타나며 새벽에 닭이 울면 모든 鬼神은 그들의 世界로 살아진다고 믿는 土俗的 巫俗 信仰 때문이다) 어두워져야 제대로 지경을 다진 것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의 실질적인 理由도 모두가 生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품삯을 주지 않는 이 지경단기에 낮에는 洞里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일을 끝낸 밤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밤이 되면 지경을 다질 터의 主人이 洞里의 사람들을 모아 지경 준비를 하고 터에 告祀床을 준비하고 터주고사를 드린다. 고사상에는 간단한 酒果脯를 준비하고 집을 짓더라도 아무런 害가 없이 福을 내려 달라고 祝願을 한 다음 술을 사방에 뿌린다. 터주 고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술과 飲食을 먹는다. 이때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따로 품삯이 나가지 않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예의이며 지경단기를 하는 동안에도 充分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한다. 飲食을 먹고 난 후에는 햇불을 밝히고 洞里의 장정들이 지경돌을 가운데 놓고 지경줄을 잡아 들었다 놓았다하며 터를 다지는데 이때 지경돌은 사람의 키



를 훨씬 넘어 높이 올라간다. 이때는 선소리꾼이 북을 메고 선창을 부르면 지경꾼들이 후렴을 받으면서 땅을 끌고루 다져 나가는데 선창의 전반부에 지경돌을 들어 올리고 후반부에 내리닫고 후렴의 전반부에 들어 올리고 후반부에 내리닫는 방법으로 반복한다.

〈지경석의 운동〉

선창부)

이집터를 돌올적에 (들고) : (닫는다)	에이어라 지경이요 (들고) : (닫는다)
아들을 보면 : 충신낭고 (들고) : (닫는다)	에이어라 지경이요 (들고) : (닫는다)
딸을 낳으면 : 열너로다	에이어라 지경이요

이렇게 행해지는 지경단기의 노래는 보통 집을 지어서 동티가 나지 않고 그 집안에서 효자와 열녀가 태어나고 정승, 판서가 나와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는 祝願辭가 대부분이다. 밤 늦도록 지경을 다진 洞里 사람들은 지경단기가 끝나면 술과 음식을 먹으며 한바탕 놀이 마당을 펼치며 이때는 大同團結의 協同心과 相扶相助의 美德을 볼 수 있다.

(지경 노래)

에헤어라 지경이요

〈후렴〉 에헤어라 지경이요

이집터를 마련할제  
 앞 뒤를 돌아보고  
 뒷산 내력 받아와서  
 이집터가 마련되고  
 앞산 내력 받아와서  
 이집터가 마련될 때  
 자손나면 충신이요  
 딸을 나면 열너로다.  
 에헤어라 지경이요  
 아들나면 충신이요  
 딸을 나면 열너로다.  
 에헤어라 지경이요

제보자 : 모현면 매산리 거주 전 만길 옹(70才)

## 모심기 노래

봄이왔네 봄이왔네  
농사 발진 시켜보세  
한톨종자 싹이나서  
만곱쟁이 열매를 맺는  
이농사는 하늘땅에 조화로세  
비바람을 무릅쓰고  
힘을합하여 우리농부 일이로다  
첫번 심은 모는 토지지신 성님이요  
두번째 심은 모는 조상님의 상님이요  
세번째 심은 모는 부모님의 상님이라  
이논에 심는 모는 삼백줄이요  
저논에 심는 모는 사백줄자리요  
이논저논 다심고보니  
저건너 갈비봉에  
비가 묻어 들어온다  
저농부 거동보라  
우장을 허리에 두르고  
모내기 힘을쓰네  
부지런히 모를심고  
집에가 부모처자 만나보세

※ 1978. 5. 이 창(남 62세 · 농업)  
내사면 주계리

## 논매기 노래

에헤야 호미차  
 에헤야 슬슬돌리세  
 에헤야 찍었네  
 에헤야 슬슬돌리세  
 에헤야 고렸네  
 에헤야 슬슬걸어가세  
 에헤야 어허  
 농부야 말들어보소  
 올해도 풍년이니  
 내년도 풍년이되게 해주시오서  
 하늘이 내려주신 의논인데  
 흉년이 무엇인가  
 농부의 피와땀이 허세로다  
 에헤야 고렸네  
 에헤야 고렸네

※ 1979. 4. 7. 김영배(남·52세·농업)  
 용인읍 호리 호동

## 논애벌매기 노래

여보시오 농군님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천하지대본야는  
 농사밖에 더있는가  
 올해도풍년 내년도도풍년  
 세세년년 풍년들어  
 국태민안 이뤄보세  
 [후렴] 우헤이어-어기영차 찍었네 아하-

※ 1978. 4. 22 이재천(남·63세·농업)  
 포곡면 신원2리

## 김매기 노래

오라어금차 뛰끔매라  
[후렴] 오라어금차 뛰끔매라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제청춘 오늘백발  
그아니도 가련하나  
장래에 일등미색을  
곱다고 자랑마라  
서산에 지는 해와  
동녘에 솟는달은  
그누구가 막을손가  
요순우탕 문무주공  
공맹안중 정부자두  
도덕이 과천하여  
만고혹을 일렸건만  
한번아차 죽어지면  
영웅영천 그만일세  
만고절색 영웅들도  
한번죽으니 허사로다  
하물며 초로같은 우리인생  
말은하여 무엇하리



※ 1979. 6. 고계순(남, 58세 · 농업)  
용인읍 호리 365

## 꿀 노래

형신고생 고안근  
 지진경부 부를적에는  
 영감소식 묻지를말고  
 지계동밭만 지고가자  
 여보시오 석손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인간고려 태평하구나  
 여보시오 석손님네  
 인간가슴 청풍하고  
 부모건강 체였으니  
 체주분만 하리로다  
 변돌이 어땡더냐  
 어이구지구 하는말이  
 청산도 꽃이피어도  
 백설백발 노인들아  
 이내한마음 뜻을박아 듣지하리로다.  
 어이구지구 우리부모  
 불쌍하기가 짝이없네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내몸이 어찌되어  
 이런고생 하리로다.

얼씨구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입자없이 지낸정이  
 입과꿈과 매인가슴이  
 속터지는구나  
 내가슴 씌어드는  
 정과같이 매였으니  
 인물과 인풀하리로다.  
 어머니님, 아버지님,  
 얼씨구 좋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 1976. 황재하(남, 53세)  
 모현면 매산리 중천

## 양벽정기 (漾碧亭記)

홍 귀달(洪貴達) 지음

홍 순석 옮김

홍귀달(1438-1504)은 조선 초기의 문인으로, 자는 겸선(兼善), 호는 허백당(虛白堂), 함허정(涵虛亭), 시호는 문광(文匡)이다. 본관은 부계(缶溪)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나 가난하여 책을 빌려서 공부하여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세조 7년(1461) 문과에 급제하고, 1467년 이 시애(李施愛)의 난 때 나가 싸우고 공을 세워 정당(正郎)이 되고, 이조판서, 좌참찬에까지 올랐다. 연산군 10년(1504) 갑자 사화 때 화를 당하였다.

다음의 기문은 김우(金祐)의 청으로 지은 것인데, 양벽정에 현판으로 달려 있었을 판각은 전하지 않고, 그 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0, 〈용인현〉조에 전한다. 글이 좀 긴편이므로 원문과 번역만을 적는다.

고을에 못과 축대와 정자 따위의 경치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으라마는, 한 세상 태평스런 기상을 보려면, 여기에러야 경험할 수 있나니, 어찌 우연할 뿐이리요, 용인은 남북으로 몰려오는 요충 지대에 해당되므로, 경기 여러 고을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이 이점이었다. 홍치(弘治) 10년(1497) 정사(丁巳)에 김우(金祐)가 나와서 원이 되었다. 처음 도입하니 아전이 속이지 못했고, 조금 뒤에는 백성이 그의 영을 감히 범하지 못했다. 얼마 뒤에 온 경내(境內)가 흡족하였고, 따라서 풍속이 변화하였다. 오직 명하는 대로 따라서 독촉하지 않아도 민사(民事)에 일이 없게 되었다. 이에 관사를 수선하여 새롭게 하니, 온 고을이 문득 안목(眼目)이 고쳐졌다. 객헌 동쪽에 예전에는 조그마한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터만 남았으나, 동쪽 담이 너무 가까워서 객사 마당 넓이가 1묘(畝)도 못되었다. 손이 와도 좁은〈마당을〉 답답하게 여겨서 술상을 물리면 곧 일어나 나갔고, 잠깐 머물지도 않았다. 이렇다면, 비록 사방 백성이 들에서 화합한다 하여도, 어디에서 태평한 기상을 볼 수 있으랴. 이에 너무 가깝던 담을 물리고 땅을 뚫어서 넓히니, 그 안에서 말을 달릴 만하였다. 북쪽에서 흘러 내리는 산골

옛 문헌속의 용인(4)

샘물을 끌어서 동쪽으로 인도하고, 담을 뚫어서 마당 안 못에 흘러 들게 하였다. 못 깊이는 한 길쯤이고, 세로는 두어 발, 가로는 세로의 곱절이며, 물이 맑아서 옥 같았다. 마당에는 고목이 띠엄띠엄 따로 서서 땅에 서늘한 그늘이 졌는데,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런 뒤에는 남북에서 오는 손이 휴식할 곳이 있음을 기뻐하였고, 국가의 태평한 기상도 여기에서 볼 수 있었다. 기미년 여름에 내가 영남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더위에 시달려서 행로(行路)가 고달팠다. 고을에 이르니, 주인이 벌써 객헌에다가 자리를 베풀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곧 자리를 못가로 옮기도록 하여, 거닐며 마시며 읊조리다가 밤이 깊은 뒤에 취침하였다. 닭이 울자, 다시 길에 올랐으나, 말 위에서도 뒤돌아보며 그곳 풍경을 그리워하였다. 깨끗한 물결에 지는 해의 광경이 지금까지 나의 마음에 오락가락하여, 남쪽에서 오는 자가 있으면, ‘용인 못을 보았는가.’ 묻고, 보았다는 대답을 들으면 내가 직접 본 것 처럼 기뻐하였다. 하루는 우가 사람을 시켜 나에게 말하기를, ‘못에 정자를 지었으니, 기문하지 않겠나.’ 하고, 심부름 온 자가, ‘정자는 모두 3 간인데, 반은 못 가운데에 들어갔으므로 물빛이 항상 처마머리에 일렁거려서 아주 맑고 서늘합니다. 근일에 영남 절도사 안상공침(安相公琛)이 이곳을 지나다가 좋아하여, ‘양벽(漾碧)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였다. 내 말하기를, ‘어허, 매우 좋은 이름이라.’ 하고, 일어나서 사(詞)를 지어 김우에게 주기를, ‘못 물이 맑구나, 나의 옷깃을 씻을까나. 못 물이 깨끗하구나, 나의 마음을 씻을까나, 못 파고 정자 지으니, 그 취지가 심장(深長)하고, 물고기과 새들도 서로 관계하지 않고 제대로 떴다 잠졌다 한다. 나도 또한 잊으려 하나 생각 금하기 어려워라.’ 했다.

邑而有池臺亭榭之勝何關

於政治而要觀一世太平之象者於是乎微焉豈偶然而已哉龍仁當南北走集之衝畿縣之最難治者此耳弘治十年丁巳金侯祐出而爲宰始至也吏不敢欺稍焉民不敢犯其令已而闔境洽然隨以化惟所令之不煩鞭策既無所事於民事則乃繕館宇而新之一縣倏然改觀容軒東舊有小亭今無遺址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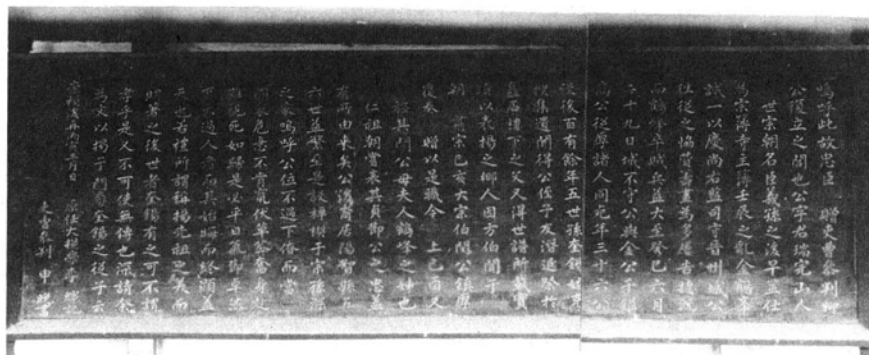
東牆迫近客舍庭除之廣不能畝客至病其阨杯盤  
 撤輒起去不小留焉是則雖四民和於野於何見大  
 平象乎於是退其迫近夷地而廣之其中可容馳馬  
 引山泉之北來者導而東之穴其墻入其流池于其  
 內深可一身許縱數丈橫倍礎水清碧玉如也古木  
 蕭蕭離立庭際落地有涼陰甚可愛也然後客之南  
 北至者喜其有憩息之阨而國家大平氣象則未始  
 不在此也已未夏予自嶺南還京師道病暑苦行至  
 縣則主人已設席客軒候之即令移其座池上道遙  
 觴咏夜久就寢鷄鳴復登途馬上回頭戀戀不自已  
 至今晴波落日往來于懷人有自南來者輒問之曰  
 頗見龍仁池塘否應之曰旣則喜如親面目其地一  
 日侯侂人語予云池已亭矣盍記諸侂之言曰亭摠  
 三間半入水中波光常搖蕩簷楹絕清麗近有嶺南  
 節度使安相公琛過而悅之名曰漾碧予曰喜甚善  
 名焉乃作而爲之詞遺金侯曰池之水明兮可以濯  
 吾襟池之水清兮可以洗吾心池之亭之兮其趣深  
 魚鳥相忘兮自浮沉我亦欲忘子兮思難禁



# 柳復立 旌閭記

李緯(1680~1746) 지음

洪順錫 畝김



소재지 : 용인군 내사면 송문리

슬프다. 이것은 이조참판으로 추증된 유 복립(柳復立)의 정려이다. 공의 자(字)는 군서(君瑞)로 완산(完山) 사람이다. 세종조의 명신인 의손(義孫)의 후손이다. 일찌기 벼슬하여 종부시(宗簿寺) 주부(主簿)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학봉(鶴峯) 김 성일(金誠一)이 경상우감사로서 진주성(晉州城)을 지키고 있었는데, 공은 그곳에 가서 그를 모시며 계획을 도움이 많았으며, 누차 싸움에 승리하였음을 알리었다. 학봉이 죽자, 적병은 더욱 쳐들어 왔다. 계사년(癸巳年, 1593) 6월 29일 성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공은 김 천일(金千鎰), 고 종후(高從厚)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죽었다. 나이 36 세였다. 공이 죽은 후 백 여년, 5 세손 규석(奎錫)이 비로소 전하는 이야기를 적극 수집하다가 공의 조카 우잠(友潛)을 찾았으며, 축석루 밑에 있는 부친과 함께 추제(追祭)하였다. 또 세보(世譜)에 실린 실적을 얻어 널리 표양(表揚) 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방백(方伯)을 통하여 조정에 아뢰었다. 숙종 기해년(己亥年, 1719) 대종백(大宗伯), 민진후(閔鎭厚)가 다시 아뢰어 지금의 벼슬에 추증되었다. 지금 임금(英祖)기유년(己酉年, 1729)에는 또 그 가문에 정려

를 내리었다. 공의 어머니는 학봉의 누이이다. 인조 임금 때 일찌기 그 정절을 표창한 바 있으니, 공의 충정은 다 그 말미암은 바 있다. 공의 후손은 양지현에 살고 있는데, 5·6 세손은 더욱 번창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종손(深)의 집에 작설(棹楔)을 마련할 정도였다. 슬프다. 공의 직위는 하급 관리에 불과하였으나, 국가의 위급을 당하여서는 도망하여 숨지 않고, 난에 뛰어들어 죽어서 돌아가고자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평소에 기절이 탁연하여 남들보다 크게 뛰어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가려졌다가 끝에가서야 드러남은 다 하늘의 뜻이라. 예기(禮記)에서 이른바, 선조의 미덕을 칭양(稱揚)하여 후손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함이 있다고 하였는데, 규석에게 그 같음이 있으니 효자라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전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심(深)이 내게 글을 청하여 문 곁에 걸고자 한다면, 규석의 조카라 하였다.

승정(崇禎) 년간 두 번째 병인년(丙寅年, 1746) 3월 일에 원님 대제학 이재(李紱) 적고, 이조참판 신만(申晩) 쓰다.

## (原 文)

嗚呼此故忠臣 贈吏曹參判柳公復立之間也公字君瑞完山人 世宗朝名臣義孫之後早筮仕爲宗簿寺主簿壬辰之亂金鶴峯誠一以慶尚右監司守晉州城公徃從之協贊籌畫爲多屢告捷既再鶴峯卒賊兵益大至癸巳六月二十九日城不守公與金公千鎰高公從厚諸人同死年三十六公歿後百有餘年五世孫奎錫始克搜集遺聞得公侄子友潛追祭於巖石樓下之父又得世譜所載實蹟以表揚之鄉人因方伯聞于 朝 肅宗己亥大宗伯閔公鎮厚覆秦 贈以是職令 上己酉又 旌其門公母夫人鶴峰之媿也 仁祖朝嘗表其貞節公之忠盖有所由來矣公後裔居陽智縣五六世益繁至是設棹于宗孫深之家嗚呼公位不過下僚而當 國家危急不肯竄伏草莽奮身赴難視死如歸是必平日氣節卓然有大過人者而其始晦而終顯盖天也若禮所謂稱揚先祖之美而明著之後世者奎錫有之可不謂孝乎是又不可使無傳也深請余爲文以揭于門房奎錫之從子云

崇禎後再丙寅三月 日 原任大提學李紱記 吏曹參判申晩書。

# 地名由來

李仁寧

## ◆ 비성 고개

모현면 일산리 입구 나즈막한 고갯길을 비성 고개라고 부른다. 비성 고개란 <비(碑) 서 있는 고개>의 준말로서 이 고개 단애에 열부 최씨의 묘문비가 있기 때문이다. 열부 최씨는 이 선량의 처로서 그의 남편이 역질로 자리에 눕자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간병하였으나, 마침내 죽었다. 이때 최씨는 남편의 요대(腰帶)를 몸에 간직했다가 장삿날 목을 매어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이의 열행을 기리고자 열려비를 세운 후 사람들은 이 고개를 <비성 고개>라 하였던 것이다.

## ◆ 소마니 고개

구성면 보정리 연원 부락과 언남리 사이에 있었던 작은 고개. 도로 포장 공사 후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나 이 지점을 옛날에는 <소마니 고개>라고 하였다. <소마니>는 손맛이 즉, <손님맛이 고개>라는 데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잠와 최 진립 선생 실기에는 이곳을 망객현(望客峴)이라고 적고 있다. 즉, 한양에서 아침에 길을 떠나 용인에 이르면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이곳에서 객주나 객사를 찾는 길손을 맞이하던 곳이었으므로 이를 <손맛이 고개>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금의 소마니가 된 것이다.



## 조선 명신 이자(李耜)

李仁寧

이 자는 조선 중종(中宗) 때의 명현으로 성종 11년 경자(庚子: 1480)년에 한산 이씨(韓山李氏) 문중에서 사간원(司諫院) 예견(禮堅)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字)는 차야(次野), 호(號)는 음애(陰崖), 시호(諡號)는 문경(文敬)이며, 목은 이색의 후예이다. 그의 조부 이형증(李亨增)은 참판을 역임했는데 청주 목사(淸州牧使)를 지냈으나 물건 하나도 남에게 받지도 주지도 않은 강직한 선비였다. 그의 부친 예견(禮堅) 역시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간 지 40여년 동안 청렴한 것으로 이름이 있었으며 검소하게 살라는 것을 가훈으로 남겼다. 이 자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주로 영남과 관동 지역에서 자랐다. 이는 바로 부친의 임지를 따라 다녔기 때문이다.

나이 14세 때에는 두타산(頭陀山) 중대사(中臺寺)에 올라가서 송사(宋史)를 읽다가 개연히 분노하여 만언서(萬言書)를 지어 바치려 했으나 부친이 경계해서 중지시켰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다. 또한 절에 가서는 어느 노승이 계율(戒律) 지키기를 매우 엄격히하고 말하는 것이 조리가 있으므로 그를 좋아하여 불도에 참여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다.

절 앞에 깎은 듯한 절벽이 서 있었는데 거기 쌓인 눈이 창가에 비치는 밤에 글을 읽으면서 천고(千古)의 신비에 격앙(激昂)하여 심취하기도 했었다고 그의 유년시절을 회고하는 자서전 음애 일록에서 밝히고 있다.

서울에 돌아와서 신유년(연산 7년 : 1501) 인 22세 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갑자년(연산 10 : 1504)에 다시 문과(文科)에 장원하였으며 벼슬은 우참찬에 이르렀다. 대간(大諫)이던 부친 예건(禮堅)이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성주 목사(星州牧使)로 좌천되었을 때 이 자는 이조좌랑으로서 부친을 봉양하고자 스스로 자청하여 문소(의성)의 원을 지냈는데 백성을 잘다스리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기우려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도 그의 공덕을 생각하는 주민이 많았다고 한다.

1506년 중종이 보위에 오르자 옥당(玉堂 : 홍문관)에 뽑혀서 시종(侍從)이 되었으며 정축년(중종 12년 : 1517)에 부제학(副提學)으로 승진되었다가 다시 승지로 자리를 옮겼다. 그 이듬해인 무인년(중종 13년 : 1518)에 남곤과 함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었는데 상사(上使)였던 남곤이 북경에서 중병을 얻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힘써 구호하였다.

이때 함께 갔던 서장관(書狀官) 한충(韓忠)이 귓속말로 이르기를 「저놈이 土流를 赤地로 만들 것이요」하였

는데 이 자는 정색을 하고 말리면서 힘써 보호하였으므로 생명을 건졌다. 귀국하였을 때는 계자(陞資 : 등급)를 뛰어 한성판윤(漢城判尹) 겸 경연관(經筵官)으로 특진되었으며, 이 해가 기묘년(중종 14년 : 1519) 봄이었다.

그 때 조광조는 훈구대신의 위훈을 삭제하는 등의 과격 정치로 인해서 정가는 크게 동요되고 인심(국론)이 엇갈렸다. 이때 이 자는 정가를 수습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대세가 기울어져서 기묘사화의 와중에 휩싸이게 된다.

결국 정암 조광조 등과 함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가 최후에 석방되었다. 이것은 사화의 원흉이던 남곤이 명나라에 가서 병 구환 받은 것을 잊지 않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2월에 최 숙생(崔淑生)과 함께 관직을 삭탈당하고 음성 고을의 음애(陰崖)에 우거하면서 스스로 호(号)를 음애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은둔 생활이 시작되는데 오직 학문과 독서에 심취하였고 눈길을 모아 정신을 집중하므로 집안 사람도 안면을 볼 때가 드물었다.

또한 샘물을 연못에 끌어 들인 후 모옥(초가)으로 정자를 짓고 휘파람을 불며 시조를 읊조려서 흥을 풀고 술이 생기면 양껏 마셔서 가슴 속의 음울을 달래었고 때로는 붓 가는 대로 회포를 적어 시름을 달랬다.

그러다가 기축년(중종 24년 : 1529)

〈역사의 인물〉

에 인가가 드문 심산 유곡을 찾아 이사를 했는데 그곳은 청주 달천(達川)상류의 토계(兎溪 지역이었다.

이곳에 정자를 건립하고는 몽암(夢庵)이라고 명명하고 자신의 호(號)역시 몽암 또는 계옹(溪翁)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음에 이 자는 이 탄수 이항(李沆)과 벗삼고 자주 왕래 하였으므로 이들이 지나가는 길목의 새와 물고기도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음에 이 자는 이 부분을 그의 일록에 이렇게 적고 있다.

맑은 바람 밝은 달을 만나면 한 뿔대로 서로 오가며 돌 위에 앉아 시를 읊으며 신선의 발자취를 사모하여 맑은 냇물에 고기를 낚기도 하고 한가로운 전원의 틈을 얻어 주인이 되었으니 어찌 천지간에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는 여기서 일생을 마치니 이해가 중종 28년인 1533년이고 수 54세였다. 그가 죽은지 6년 후에 중종이 기묘년의 일(기묘사화)을 크게 뒤우쳐서 그때 사화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기용하였다고 한다.

1577년(만력:정축)에 가서 부제학이던 유 희춘(柳希春)이 주청하기를 「참판 이 자(李耜)는 기묘년의 명신으로 억울하게 폐출되어서 명(命)을 마쳤읍니다. 그의 충직한 행실이 잊혀진다면 실로 애석한 일읍니다. 명호(名号)를 내리시어 장래 사류를 장려하시옵소서」라고 청하였는데 임금은 이를 받아들여 「학문이 넓고 도덕이 있음을 문(文)이라 하고 일찍 일어나 경계하는 것을 경(敬)이라 하여 文敬公 이라고 시호(諡号)를 내렸다.

그의 행장록에는 다음과 같이 피력



음에 父親 禮敬의 墓

되어 있다.

공은 천분이(天分)이 매우 높았으며 외모도 아름다웠고 마음이 넓고 컸다 또 심주(心柱)가 넓고 두터웠으며 도량 또한 넓고 밝았다.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면서도 엄하고 일처리는 간략하고 근실하게 하였다. 조상을 받드는 일이나 제향은 정성을 다하였으며 벼슬에 임해서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규문(閨門) 안에서는 질서가 엄하였다. 또 평소에는 담연히 세상 일을 잊은 듯 하다가도 조정의 정사가 잘못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날 탄식하였다. 제자를 가르치다가 진동(陳東)을 죽인 대목(송나라의 태학생인 진동이 당시의 간신인 왕(汪)과 황(黃)을 물리치고자 소를 올렸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중국 고사)에 이르러서는 두어 줄을 읽지 못하고 목이 메어 소리를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숲은 빛이 얼굴에 가득하고 눈물이 눈썹에 가득하니 배우던 자들이 면구히 여겨 물러가기도 했다. 또 그의 학문은 쇄소(灑掃), 응대(應對)를 계제(階梯)로 삼었다고 했으며 신을 궁구하고 자연의 이치와 섭리론에 귀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양하는 데에는 도(道)가 있고 체(體)와 용(用)을 구비한 인물이라 했으며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경솔하게 남과 더불어 말하지도 않았다. 또 빈말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실천하는데 힘썼다.

만년에는 진실이 쌓이고 학력이 오래 됨에 인의(仁義)가 정숙(精熟)하여서 동(動), 정(靜), 어(語), 묵(默) 어느 것이나 예에 어그러짐이 없었다고 했는데 당시 대사간을 지낸바 있는 심언광(深彦光)이 이 자를 두고 지은 만사(挽詞)는 이렇게 되어 있다.

“영묘(英妙 : 어린) 한 시절의 높은 심회가 노성(老成)에 견주었는데 / 한세상 경장(更張)할 때는 놀랍기도 하였다 /

애오라지 시례(詩禮)로서 초복(初服)을 이루었으나 /

경윤(經綸)한 것이 반생을 그르칠 줄이야 / 쓰임과 버려짐은 천륜과 같은 것이니 / 기뻐하거나 성낼 것 없고 / 슬픔과 편함은 처지에 따르는 것일진대 / 쇠고(衰枯)와 영화(榮華)가 상사(常事)이려니 /

궁(窮), 통(通), 달(達), 절(節) 모든 것이 심상한 일인듯 /

10년이 지났으나 임천(林泉)에는 아직도 그 이름이 전하는구나”하는 것인데 후세 사람들은 이 시를 보고 형용이 미흡하다 하였으나 도자(道者)의 개성이 있다고 하여 널리 알려졌다고 했다. 그의 저서 음애 일기(陰崖日記) 마지막 장(章)에 이렇게 적고 있다.

「사람이 천지간에 나서 임금과 부모가 있음으로서 버리(綱)를 삼는 것인데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으나 제사도 예를 갖추지 못하니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눈물이 난간을 적신다. 또 신하가 되어 잘 한 일이 없어 죄가 되며 이를 헐뜯고 욕하는 것이 만 가지나 되건만 오히려 입을 벌려 먹을 것을 기다리고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웃으니 어찌 완고하고 독한 물건이 아니라 …….

말년에는 병이 얽혀 항상 추위와 더위의 절기가 바뀔 때마다 해소가 위로 치밀어 숨이 끊어지려 하니 대개 4~5년이 지나지 못해서 이 몸이 어질 것 같구나 뜬 세상에 사랑하고 그리워 할 것이 없지만 두 세 명 어린 딸이 아직도 출가하지 않았으니 세상을 버리고자 하여도 버리지 못한다. 어찌 전생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 괴로움을 겪는 것인가? 대개 사람이 70세를 누리는 자가 극히 적고 50~60이 되는 자도 요사(夭死)라고 일컫지 않는데 나는 이제 나이 51세라 과거에 겪은 일을 돌이켜 보건데 잠시도 용납 할 수가 없구나 이제 세월이 급한 것을 깨닫노니 60~70을 더 산다면 몇 해이겠는가 주검을 참고 글을 읊고 술을 마시고 미미해서 세월을 보낼 빛이니 다시 무슨 일로 마음을 잡아 몸을 유지하리요……. 나의 시는 추하고 화창하지 못하여 감히 시 짓는 사람의 문간과 담 옆에도 가지 못하지만 다만 스스로를 즐길 뿐이다.

내 자손을 위한 글은 광우리 속에 간수해 두었으니 때때로 꺼내보고 오늘날 내 정경을 생각해 봄이 옳을 것이나 웃음을 살까 두려운 일이다. 경인 선달 그믐날 술 취한 기분으로 붓가는 대로 적노라」

음애일기(陰崖日記)는 중종 4년(정덕 44년 : 1509) 기사 윤9월부터 시작하여 중종 11년 병자(1516) 12월에 끝났었다. 그러나 음애 년보(年譜)에는 중종 6년, 7년과 10, 11년은 상중(喪中)에 있었으므로 기록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본 일기는 음애가 그 당시 직접 보고 들은 정부 요인과 야인의 행적 일사(逸事)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왜구와 교섭한 일을 비롯해서 농사에 관한 옛 풍속들을 적었고 전말에는 소능(昭陵)의 복명(復命)과 유자광(柳子光)의 공훈삭제 전말을 비롯 여말(麗末)의 유종(儒宗) 목은의 아들 이종학(李種學)의 행적기를 부록으로 엮어 사료(史料)로서 많은 가치를 남기고 있다.

그의 묘소는 부친 예건의 묘소와 함께 기흥면 지곡리 상동 부락에 전해 오고 있는데 그의 묘표(墓表)는 승정기원 후 5병자(1336년) 4월 세웠고 그 후손들이 묘하에서 누대를 이어오고 있다.



새 얼굴

XXXXXXXXXX 朴 桂敏 龍仁郡守 XXXXXXXXXX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한편, 신속 정확한 민의 위주의 행정에 역점을 두어나가겠다」는 취임 일성,

제30대 朴 桂敏 용인 군수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産인 朴군수는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61년 9월 공직에 첫발을 디딘이래 내무부 기획관리실, 지방행정국, 감사 담당관실을 거쳐 82년 파주군수, 85년 여주 군수를 역임하였다.

부인 정 삼영(35)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테니스.

金 元錫 용인 경찰서장

「친절과 봉사로 군민 편익 위주의 치안 행정을 펴나가며, 공정 신속한 업무체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는 한편, 성실과 근면으로 출선수범하여 치안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임소감을 밝힌 金 元錫 경찰서장은 전남 고흥 産으로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 61년도에 경찰에 투신, 해양 경찰대를 시발로 치안국, 경북 경찰국, 서울시경, 치안본부 등 주요직을 거쳐 정주 경찰서장, 이리 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치안 본부에서 용인 경찰서장으로 부임. 복무 지침을 「친절, 공정, 성실」에 두었다. 부인 조 말례 여사와의 사이에 2남 3녀를 두고 취미는 운동.

李 在孝 농협 용인 지부장

「농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농민과 함께 하는 농협이 되도록 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에 가일층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힌 李 在孝 농협 지부장은 충북 친천 産으로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61년도에 농수산부에 투신 김포군 지부장을 거쳐 농협 충북 연수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영 방침으로는 신뢰와 화합, 책임과 공정, 친절과 봉사,에 두었다. 부인 김 충희 여사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취미는 등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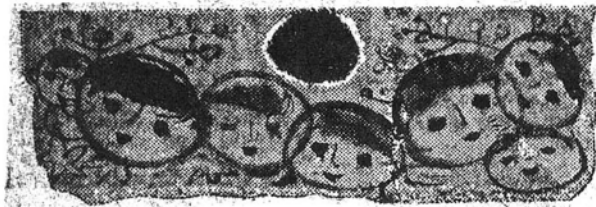
## 심장병 환자 돕기 자선회

새세대 육영회 용인군 지회(회장 전 재선)에서는 3월 11일 문화원 강당에서 심장병 환자 돕기 자선회를 열었다. 이날 자선회에서는 새세대 육영회 회원들이 녹두 빈대떡과 감주를 준비, 관내 기관장과 일반 사회 단체장, 유지 및 군민 등을 초청하여 용인관내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박 계민」 용인 군수와 「김 원석」 경찰서장, 「박 제현」 교육장 등 기관장과 유지 등이 참석하여 성금을 각각 기탁하였다. 이날 모인 성금은 5백여만원으로 특히 새세대 육영회 용인군 지회 「전 재선」 회장이 1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였다. 이 성금의 일차 시혜자는 포곡면 삼계리 358번지에 거주하는 「김 초자」(20세)양과 포곡국민 학교 2학년 「김 춘기」(9세), 태성고등학교 1학년 「이 상섭」(17세)군으로 각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새세대 육영회 용인군 지회에서는 용인군 관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파악하여 새세대 심장 재단에 의뢰,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가정에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는 보호자의 연락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 : 새세대 육영회 용인군 지회

전 화 : 2 - 2033 (용인 문화원)

2 - 2022 (제일 약국)



## 제 3 회 피아노 경연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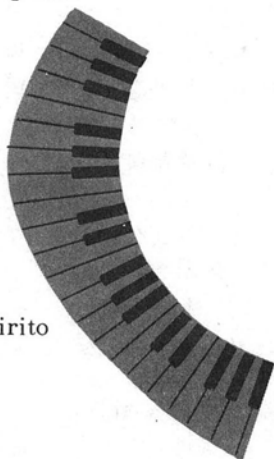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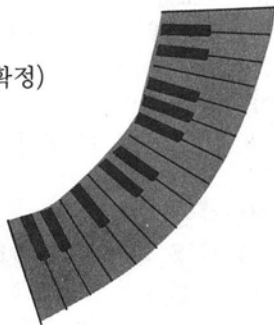
용인 문화원에서는 음악 인구의 저변 확대와 정서 함양의 일환으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피아노 경연 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토록 바랍니다.

- (1) 참가자격 : 초, 중학교 학생
- (2) 일 시 : 1986. 7월 하순 (일자 추후 확정)
- (3) 장 소 : 문화원 강당
- (4) 신청마감 : 1986. 7.10
- (5) 신청장소 : 문화원
- (6) 곡 명 : 각부별 지정곡
- (7) 참 가 비 : 5,000 원
- (8) 시 상 : 각부별 금, 은, 동상
- (9) 심사위원 : 음대 교수 (당일 발표)
- (10) 부별학년

- 1 부 : 국민학교 1, 2 학년
- 3 부 : 국민학교 5, 6 학년
- 2 부 : 국민학교 3, 4 학년
- 4 부 : 중학교

### ◆ 피아노 경연대회 연주 지정곡

- 제 1 부 (1, 2 학년)  
BEETHOVEN  
Sonatine No. 5 (제 2 권)  
Moderato 및 Romanze
- 제 2 부 (3, 4 학년)  
KUHLAU  
Sonatine Op. 20 No. 3  
1st mov Allegro con spirito
- 제 3 부 (5, 6 학년)  
MOZART  
Sonata K. 280  
1st mov Allegro assai
- 제 4 부 (중학교)  
CHOPIN Étude in F minor Op. 25 No. 2



## 단오제 행사 개최

용인 문화원에서는 향토 문화 창달의 일환으로 고유 민속날인 오는 6월11일 단오날을 기하여 전통 민속 문화 행사를 개최, 애향심 고취와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통 풍속놀이를 재현, 전승시켜 향토애를 돈독히하는데 목적을 두고 용인 민속 문화를 활성화시켜 향토 문화의 유산을 발굴 전승하며 민속 문화 행사를 통하여 화합 전진하는 군민상을 정립하고 군민 총화를 다지는 문화 축제로 성대히 개최, 군민이 동참하여 창조, 자조, 협동의 기풍을 조성하며 전통문화 창달과 향토애를 다지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하고있다.

1. 일반사항

- (1) 행사 일: 1986. 6. 11 (1일간)
- (2) 장 소: 용인 공설운동장 (변경될 수 있음)
- (3) 주 최: 용인문화원
- (4) 후 원: 군청, 경찰서, 교육청
- (5) 식전행사: 모현중 취타대 특별 연주, 농악 시범 특별 공연

2. 대회 부문

- (1) 씨 림: 용인장사 개인전
- (2) 그 네: 읍, 면 개인전
- (3) 농악경연: 읍, 면 단체 경연

3. 문화 예술 부문

- (1) 주부백일장: 주부 대상
- (2) 서 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 (3) 미술사생: 유치부, 초, 중, 고등부
- (4) 사진촬영대회: 단오제 행사 소재

4. 전시회

- (1) 꽃꽂이 전시회
- (2) 동양화 전시회
- (3) 서예 전시회

5. 난장 개설

용인 고유의 전통 음식 및 토산품

'86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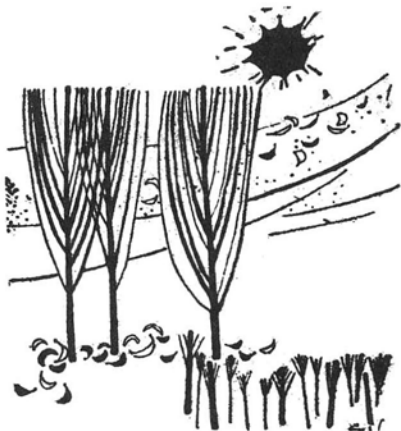
사 업 구 분	세 부 사 업 명	기 간
향 토 사 업 수 집 사 업	내고장의 얼(유물·유적) 1,000부	1986. 3. 발 간
고 유 민 속 예 술 발 굴 전 승	취 타 대 육 성	1986. 6. 지 원
지 역 사 회 교 육	효 도 관 광	1986. 5.
애 향 운 동 전 개	용 구 문 화 발 간 연 4 회 4,000 부 발 간	계 간
경 노 효 친 사 상	주 부 대 상 문 화 강 좌	1986. 5.
서 예 대 회	초 · 중 · 고 일 반 대 상	1986. 6.
주 부 백 일 장	주 부 대 상	1986. 6.
미 술 공 모 전	유 치 부 · 초 · 중 · 고 등 부	1986. 9.
영 어 회 화 대 회	중 · 고 등 학 생 대 상	1986. 7
피 아 노 경 연 대 회	초 · 중 등 부	1986. 7.
미 스 경 기 선 발	경 기 도 주 최	1986. 4.
단 오 제	단오제 내역 : 씨 림 그 네 농악놀이	1986. 6. 11

## 원 고 모 집

본 문화원에서 계간지로 발간되는 「용구문화」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 요령에 의거 군민 여러분의 원고를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주옥같은 글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속놀이, 문화재 등 발굴기(원고매수 자유)
- 애향심 고취에 관한 산문(원고 12매)
-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논문
- 각 기관 및 학교, 일반사회단체 등의 동정소식(원고매수 자유)
- 수필, 시, 콩트 등

보내주실 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문화원 <<전화>> 2-2033 번



## 허적(許 禎) 초상

본관은 陽川 贊成 許 昉의 아들, 字는 子賀 호는 水色. 또는 尚古齋라고 했다. 조선 명종 18(1563)년 용인에서 출생했다. 한성판윤, 공조참판을 거친 후 죽산(지금의 맹리)으로 낙향하였다. 이 초상은 柳孝立의 모반을 막은 후에 받은 寧社功臣像이며, 좌안칠분면의 전신교의 좌상이다. 전신의 구도에서 短軀였음을 알 수 있으며 노쇠하였음이 역역하다. 초상 전체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사모 윗쪽 부위가 약간 손상되었다. 상단에 「陽陵府院君許禎」이라고 묵서되었고 사묘의 철선묘, 단령 위의 문양 등이 세필되었다.

이 초상을 移摸한 화공의 꿈에 선생이 나타나서“내 초상을 자세히 보라, 왼쪽 눈가에 점이 빠져있느니라”라고 하였다. 이튿날 보니 정말 점 하나가 있었기로 다시 그려 넣었다는 일화를 간직해 온 초상이다. 병자호란 이전의 귀중본이다.

견본설채 75×125cm

# 편집후기

- 봄의 여신이 동장군을 부드럽게 물러가게 하고 온누리를 색채감 있고 생동감 있게 하여 모든이의 마음을 한결 따스하게 받아 준다.
- 봄은 여인의 후뜻한 손끝에서 만들어진 각가지 향긋한 봄나물에서 미각으로 느끼며 싱그러운 여인의 옷 매무시에서 시각으로 느끼고 감미로운 봄의 소리 왈츠에서 청각으로 느낄 수 있다.
- 새봄과 함께 발행되는 용구문화 제6 호에는 특집으로 사단법인 3.1 운동 동지회에서 발행한 3.1 운동실록(편자 이용락)에 수록된 용인군 수지면과 원삼면의 3.1 운동 의거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실었다.
- 이번 호부터는 용인군에 현존하는 비문, 현판 기타 자료 등을 조사하여 널리 소개하고자 「龍仁郡 金石遺文資料」편을 시리즈로 엮는다. 이에 따라 본 문화원 편집실에서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거나 후손되는 분들의 제보를 바라고 있다.
- 또한 점차 사라져가는 각종 민속놀이를 발굴 조사하여 시리즈로 엮어 소개하고자 한다.
- 「용구 문화」를 애독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특히 「사발통문」면이 항시 개방되어 있어오니 부디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 구 문 화 제 6 호

1986년 3월 25일 인쇄

1986년 3월 31일 발행

발행처 : 용인문화원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박 민 용

인쇄처 : 홍익문화인쇄사 전 화 : 274-6155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타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